

2023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 지표	5
2. '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6
나. 2023 ASEAN 정상회의 의장국	7
다. 코로나19 이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드라이브	8
라. 원자재 수출 금지(제한) 본격화	10
마. 디지털 산업 성장세 유지	11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
2. 시장 분석	42
가. 시장 특성	42
나. 교역	54
다. 투자	62
라. 프로젝트	6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70
가. 교역	70
나. 투자	78
다. 협력 유망 분야	83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9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93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104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108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11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12

2023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2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 인도네시아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

- '22년 경제성장률은 4.5~5.4%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예상
 -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21년 2분기, 7.07%로 반등 후 5%대의 성장 기록 중*
 - * 분기별 성장률 전망 : '22.1Q(5.01%) → '22.2Q(5.44%) → '22.3Q(5.5%) → '22.4Q(5.0%)
- 다만, 외부 저해요인에 따라 더 높은 성장은 어려울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을 심화,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 월별 인플레이션율 : 5월(3.55%) → 6월(4.35%) → 7월(4.94%) → 8월(4.69%) → 9월(5.95%)

■ '23년에도 지속적인 경제 상승 기대, 다만 외부 변수에 따라 일부 조정

- 정부 및 주요 기관, 내년 예상 성장률은 4~5%대 수준 전망
 - 팬데믹 변수 축소로 경제 활동 증가, 경기 부양정책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
- 강달러, 인플레이션, 러-우 사태 지속 여부 등의 변수가 내년 성장에 영향

나. 주요 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f)
인구	백만 명	255.8	258.2	260.6	262.9	265.3	267.5	269.8	272.0	274.2
명목GDP	십억 달러	861.1	932.1	1,011.0	1,042.1	1,119.0	1,058.8	1,186.1	1,289.3	1,363.1
1인당 명목GDP	달러	3,366.3	3,610.0	3,879.5	3,963.9	4,217.9	3,958.1	4,202.7	4,218.0	N/A
실질성장률	%	4.9	5.0	5.1	5.2	5.0	-2.1	3.7	5.0	4.1
실업률	"	6.2	5.6	5.5	5.3	5.2	7.1	6.5	6.0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	3.3	3.1	3.7	3.2	2.6	1.7	1.9	4.9	4.5
재정수지 (GDP 대비)	"	-2.6	-2.5	-2.5	-1.8	-2.2	-6.1	-4.6	-3.8	-3.0
총수출(FOB)	억 달러	1,491.2	1,444.7	1,688.8	1,807.3	1,684.6	1,633.6	2,223.4	2,868.0	2,764.0
(對韓 수출)	"	76.5	70.1	80.8	95.3	72.1	65.1	88.6	89.9	86.6
총수입(FOB)	"	1,350.8	1,291.5	1,500.7	1,809.5	1,649.5	1,351.4	1,855.4	2,225.0	2,279.0
(對韓 수입)	"	84.3	66.8	81.2	90.4	84.2	68.5	94.0	99.2	101.6
무역수지	"	140.5	153.2	188.1	-2.3	35.1	282.1	368.0	643.0	485.0
경상수지	"	-175.2	-169.5	-162.0	-306.3	-302.8	-44.5	34.4	149	35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13,795	13,436	13,548	14,481	13,901	14,105	14,629	15,390	14,800
해외 직접 투자	억 달러	59.3	-122.2	20.8	80.5	33.5	44.5	35.9	N/A	N/A
외국인 직접 투자	억 달러	292.7	289.6	322.4	293.1	282.1	286.7	310.1	216.2	N/A

주 : 2022년은 추정치(EIU), 2023년은 전망치 기입(EIU), 對韓 수출입은 EIU 전체 수출입 증감률을 반영해 산출
 자료 : 인니 통계청(한국 교역), 인니 중앙은행(환율), BKPM(외국인직접투자), UNCTAD(해외직접투자), EIU(기타 전번)

2 '23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 개발 및 협력 추진

-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대
-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및 영향력 강화
- 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노력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산업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지속될 예정

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 '73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진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 수행
 -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17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20년에는 양자간 경제협약인 CEPA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외교관계 유지

■ 수교 50주년에 따라 협력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기대

- '22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중 체결된 양국 기업 간 MOU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
 - 공급망, 경제 안보 및 인니 수도 이전 등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 *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연대 구축
 - * 인도네시아 신수도 인프라, 전자 행정 및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 한-인도네시아 체결 주요 MOU ('22.7) 〉

양해각서(MOU)명	서명 주체(한국-인니)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	산업부-투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실현을 위한 투자, 기술이전, 역량 강화 등 상호 협력 활동 추진 ○ 친환경 투자 기회 및 정책 교류, 녹색산업 및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
철강 생산능력 확대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	포스코-투자부-크라카타우스틸(국영 철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관련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 ○ 향후 5년간 35억 달러 공동투자 및 제2고로 및 냉연 공장 신설 등 자동차 강판 생산설비 구축 ○ 철강사업 확대 및 신수도 건설 사업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양해각서(MOU)명	서명 주체(한국-인니)	주요 내용
수도 이전 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 개정의정서	국토교통부-공공사업주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수도 이전 관련,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개발 협력 강화 ○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 및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추진
해양협력	해양수산부-해양투자조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을 통한 기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민간 참여 제도화 ○ 양식-해양쓰레기-블루카본-해양플랜트 설비 분야 등 협력사업 진행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협력	LS그룹-PLN (국영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전력 케이블-전력 기기-전력 시스템 등 기술 지원 및 사업 협력 강화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나. 2023 ASEAN 정상회의 의장국

■ 2023 ASEAN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입지 및 영향력 강화 기대

-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성과를 ASEAN 지역과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
 - 역사상 네 번째('96년, '03년, '11년)로 의장국을 맡게 되었으며 내년 라부안바조에서 정상회의 개최 예정
 - G20 발리 정상회의에 연이어 국제회의에서의 의장국을 맡는 행사인 만큼, 그간 성과와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알릴 좋은 기회로 평가

〈 ASEAN 정상회의 2023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3가지 경제 분야 우선과제(Priority Economic Deliver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재건)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노력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금융 디지털화 - (지속가능성) 그린 경제 로드맵 준비
---	--

자료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역내 경제발전 및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드라이브 추진
 - ASEAN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회복/재건',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의제를 제안할 예정
 -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다. 코로나19 이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드라이브

■ (2023 경제개발계획 개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성장을 위한 드라이브

- 내년 정책 주안점은 ①경제 다변화, ②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한 경제발전

〈 2023년 국가 개발 계획 주요 내용 (RKP 2023) 〉



자료 : RKP 2023,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

- 올해와 같이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 * '23년 인프라 예산은 392.0조 루피아로 책정되어 '22년 363.8조 루피아 대비 7.8% 상승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어 지난 2년 대비 적자 폭은 소폭 감소
 - * 지출(3,041.7조 루피아), 세수(2,443.6조 루피아) / 2023 정부예산 편성안(국회 논의 중, '22.10)
- 정부 예산만으로 모든 정책 집행이 어려워 민간협력사업(PPP), 국가간 협력(ODA, EDCF)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

■ (세부 내용-경제 다변화) 원자재 위주 교역 구조 탈피를 위한 다변화 추진

- GVC 참가 확대를 위한 유망 제조업 분야 육성 지속 추진
 - 의류기기, 제약 분야가 추가된 'Making Indonesia 4.0' 유망 제조업 육성 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자재 다운스트림(Downstream)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제련소(Smelter) 건설
 - 한-인니 CEPA 협정과 같은 통상협력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산부품 사용 요건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독려
-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 육성
 -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수입 적자의 원인인 재래식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계획 수립
 - * '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전략'(21.9)과 국가탄소감축수정계획(21.10) 수립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기본 인프라 구축
 - 신수도 이전을 위한 신수도법 공포(22.2), 신수도부 신설(22.3) 등 신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품 분야 대규모 국가 식량 단지 조성을 통해 내수 산업 활성화와 식량 안보 추진 지속

■ (세부 내용-구조개혁)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받던 환경 개선 노력 지속

- '20년 옴니버스법 공포 이후 세부 시행령 발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규칙 제정 전망
 - 시행령은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의 정부령 45개와 정부조달, 투자 분야 개방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짐
 - 시행령에도 명시되지 않은 일부 내용(인센티브 세부조건, 일부 산업 인허가 요건 등)에 대해 세부 규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INA) 설립 및 자금 조성
 - 옴니버스법을 근거로 국부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기구 설립, 초기 자본금 및 운영규칙에 관한 대통령령 정비 완료(21.1)
 -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 자체 출자와 주요국 투자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계획
 - 자금 조성을 위해 UAE,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투자 논의 진행 중

라. 원자재 수출 금지(제한) 본격화

■ 인도네시아 광물 산업 정책 동향

- 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노력
 - 인도네시아 GVC는 원자재나 1차 소재를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스트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운스트림 분야는 단순 조립 비중이 높음
 -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원부자재는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인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추이 (2018~2022.9)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9
소비재	17,181	16,454	14,656	20,185	14,597
가공 원부자재	141,581	126,356	103,210	147,384	138,456
자본재	29,949	28,466	23,703	28,627	26,432
총합	188,711	171,276	141,569	196,196	179,486

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후방 GVC 재편에 참여 노력
- 후방 제조 GVC 육성을 위해 광물 다운스트림 적극 육성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지역별 주로 매장된 광종 개발 로드맵을 활용해 원자재 다운스트림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 세부 방안으로 원자재 수출제한 정책과 다양한 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 중

■ 인도네시아 광업 품목 수출 규제 개요

- 광업법과 연동해 다양한 광종을 수출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
 - '21년 무역부 장관령 18호를 통해 광물자원 수출 제한(특정 광물 수출 금지, 사전 수출 승인 등) 확대 ('21.11.15 시행)
 - 수출이 제한되는 주요 품목은 인도네시아 생산/수출 비중이 높은 니켈('20.1), 보크사이트('23.6 예정), 구리('23.6 예정) 등임
- 내수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출량 조절
 - '21년 무역부 장관령 19호('22.1.1부 시행)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요 품목의 국내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SNANK(Sistem Nasional Neraca Komoditas)을 개설하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내수 수요 우선 정책 추진
 - 동 법령을 통해 주요 광물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이 수출 제한(사전 수출 승인, 선적 전 검사, 지정수출자제도 등) 품목으로 선정됨
 - 내수 수요에 따라 '22년 무역부 장관령 2호를 통해 팜오일을 새로운 수출제한 품목으로 선정 ('22.1.24부 시행)

니켈 수출 금지 관련 인도네시아-EU 간 분쟁 및 여파

- '21년 1월, EU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네시아의 니켈광석 수출 금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위반했다고 분쟁 해결 요청
- 인도네시아는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에 초점을 맞춰 원자재 수출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었음을 주장
- '22년 4분기 발표 예정인 WTO 최종보고서에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다운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통해 높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WTO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는 WTO 패소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 중이며, 높은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마. 디지털 산업 성장세 유지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시장

- 코로나19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한 정보통신 분야
 - 작년 산업 대부분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는 10.6% 성장
 - 이는 보건의로 분야(11.6%)와 함께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분야
- 높은 디지털 발전 잠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발현
 - 섬이 많은 군도 국가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높음
 -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80년대 이후 출생인 MZ세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능숙
 - 코로나19에 따라 강제로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급속 성장
-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분야 높은 성장 기대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한 인니 전자상거래 분야는 '25년 1,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e-Conomy SEA 2020)
 - 증가하는 모바일 활용 대비 부진한 제도권 금융 이용 문제 대안으로 핀테크 분야가 부상,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와 연계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핀테크 거래액 '18년 23조 루피아에서 '21년 8월 기준 102조 루피아로 급증
 - 코로나19 치료 대안으로 떠오른 원격 의료 분야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와 건강보험 확대로 향후 진단기기와 함께 성장 예상*
 - * Dr. Louise Hewitt (현지 1위 원격 의료 Alodokter 이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메디컬 웨비나, '21.9)
 -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교육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교육 분야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시장 수요가 맞물려 성장 전망

■ 디지털 분야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계속될 예정

-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세부 내용이 지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지불결제, 금융서비스, 디지털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육성을 위한 로드맵이 이미 수립되었지만, 세부 육성방안은 부족하다는 의견*
 - * 인도네시아 핀테크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2020)
 - 이에 따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P2P 분야 신규정이나 디지털 세금과 같이 관련 분야 다양한 정책이 내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
 -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누산타라'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2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야 수요 증가 예상
 -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위해 재래식 인프라의 현대화 작업이 지속 추진될 전망*
 - * 전자정부 구축, 스마트 교통, 폐기물 처리, 물관리, 자동화 등
 - 정보량이 증가해, 효율적인 정보 저장을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분석
 - * '20년부터 '25년까지 코로케이션 서비스 연평균 24.5% 증가 전망(Frost & Sullivan), 아마존, 구글, MS,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 인니 내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중

-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보안 수요도 증가
 - 정부, 기업 등에 보관된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다수 발생
 - * 토코피디아(1,500만 건), 정부 코로나 추적 앱 E-HAC(100만 건), 건강보험(2억 8천만 건)
 - 이에 따라 인니 정부에서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각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보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2023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코로나19로 순연되었던 경제 개발 정책 재개
 • 구조개혁과 경제 다변화 정책 본격 추진

가. 정치 환경

■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은 양호한 수준으로 무난한 정책 수행 전망

- 코로나19 변수가 축소되고, 사회적 제한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국정 지지도 상승
 -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도는 59.3%(작년 9월)에서 67%(올해 9월)로 상승*
 - * Indikator Politik Indonesia에서 9.13~9.20 1,200여 명 상대로 대면 조사
 - 조코위 정부 지지 요인으로는 사회 지원 제공, 기반 시설 및 교량 개발, 겸손, 빈곤 감소, COVID-19 대응, 일자리 창출 등으로 평가
 - 반면, 불만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식용유 및 연료 가격 상승,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 수의 증가, 빈부 격차, 국가 부채 증가, 부패 등

■ 대통령 부통령 출마 이슈와 대통령 잠재 후보들의 움직임

- 조코위 대통령 2024년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 이슈
 - 3선 개헌과 등의 추측이 나돌던 조코위 대통령의 차기 대선과 관련하여 '24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관측 존재
 - 현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 역시 해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재선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부통령이 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해석
- '24년에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각 당에서 대선 주자 선출 중
 - 주요 언론 조사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前 자카르타 주지사('22.10 임기 종료)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으며 주지사로서 얻은 인기로 인해 대선 후보 중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전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노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現 국방부 장관과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 푸안 마하라니가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음

〈 2024년 인도네시아 잠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2022) 〉

구분	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	Charta Politika Indonesia	Indikator Politik Indonesia	Lembaga Survei Indonesia	Poltracking
순위	1. Pranowo (27.1%) 2. Prabowo (19.0%) 3. Anies (15.6%) 4. Kamil (8.5%) 5. Agus (3.5%)	1. Pranowo (31.1%) 2. Prabowo (24.4%) 3. Anies (20.6%) 4. Kamil (7.2%) 5. Uno (2.5%)	1. Pranowo (29.0%) 2. Prabowo (19.6%) 3. Anies (17.4%) 4. Kamil (8.7%) 5. Agus (4.1%)	1. Pranowo (24.5%) 2. Prabowo (21.3%) 3. Anies (19.3%) 4. Kamil (10.4%) 5. Agus (2.9%)	1. Pranowo (26.6%) 2. Prabowo (19.7%) 3. Anies (17.7%) 4. Agus (4.7%) 5. Kamil (3.9%)
조사 기간	8.5~8.13	9.6~9.13	9.13~9.20	8.13~8.21	8.1~8.7
응답자	1,220	1,220	1,200	1,220	1,220
방법	전국 무작위	체계적 샘플링	전국 무작위	전국 무작위	주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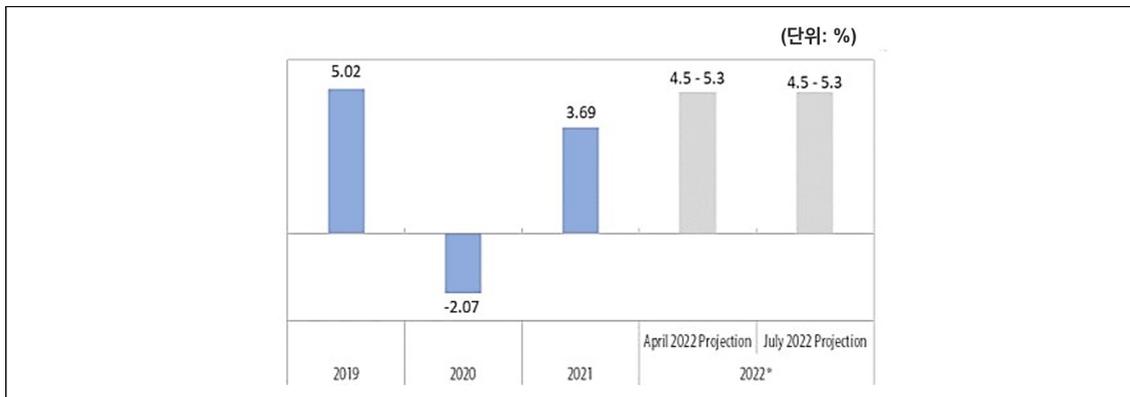
주 : 인도네시아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22년 8~9월 각자 여론조사 실시
 자료 : 각 여론조사 기관, 한인포스트(자료 정리)

나. 경제 환경

■ 글로벌 경제위기 속, 인도네시아 경제 순항 중

- '22년 경제성장률은 4.5~5.3%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예상
 - 코로나19 충격으로 '20년 -2.07% 성장을 기록한 뒤 경기 부양 노력과 거저효과로 '21년 3.69% 성장해 회복세로 전환
 - 인니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2019~2022) 〉



* 자료 : 인니 중앙은행(Bank Indonesia), 「Monetary Policy Report Quarter II 2022 ('22.7)」

● 원자재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 치솟는 인플레이션 억제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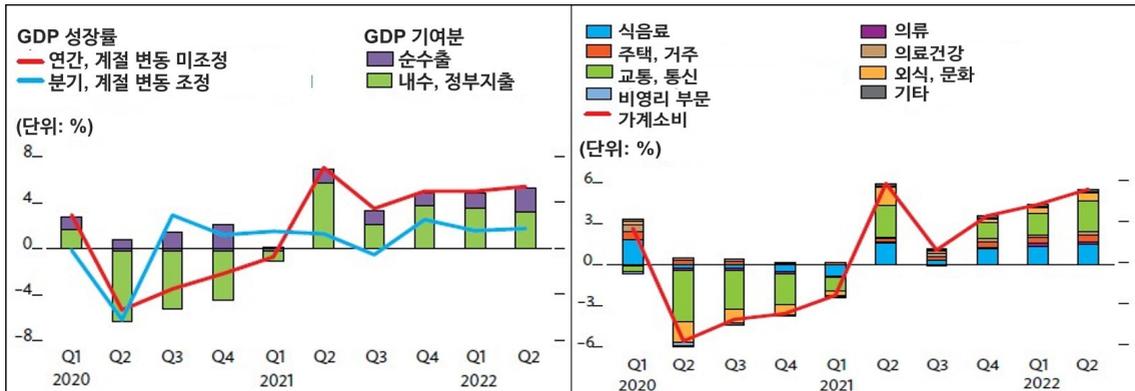
- 석탄, 금속 광물, 철강 등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국제 거래가격 고공행진으로 자원 수출이 인도네시아 성장을 주도 중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개발 전망 2022(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22.9)」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5.0%에서('22.4월 기준) 5.4%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유일
- 반면, '22년 1분기까지 2%대 초반을 유지하던 인플레이션율이 8월 4.69%, 9월 5.95%로 급등하였고 연말에는 6~7%까지 오를 전망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확대

■ 내수와 교역 모두 탄탄한 성장세

● 포스트 코로나, 민간 소비는 강한 회복세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5.4%로 발표,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는 탄탄한 성장세 유지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이동 제한 해제로 민간 소비 부문에서 교통, 식음료, 외식 등에 대한 소비 증가
- 정부는 202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3% 이하로 낮추기 위해 경기부양책과 투자를 조절 중

〈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左) 및 민간소비 부문별 기여도(右) (2019~2022) 〉



자료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 ('22.9)」

● 무역수지 흑자 전년 대비 크게 증가, 경제 성장 견인

- 2022년 1~8월 총 수출액은 1,945억 달러, 무역 흑자액은 349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68.6% 증가) 기록

〈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계 (2021, 2022년 1~8월)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1~8월	2022년 1~8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	143,696.6	194,596.9	35.4
석유·가스	7,840.9	10,865.5	38.6
비석유·가스	135,855.7	183,731.4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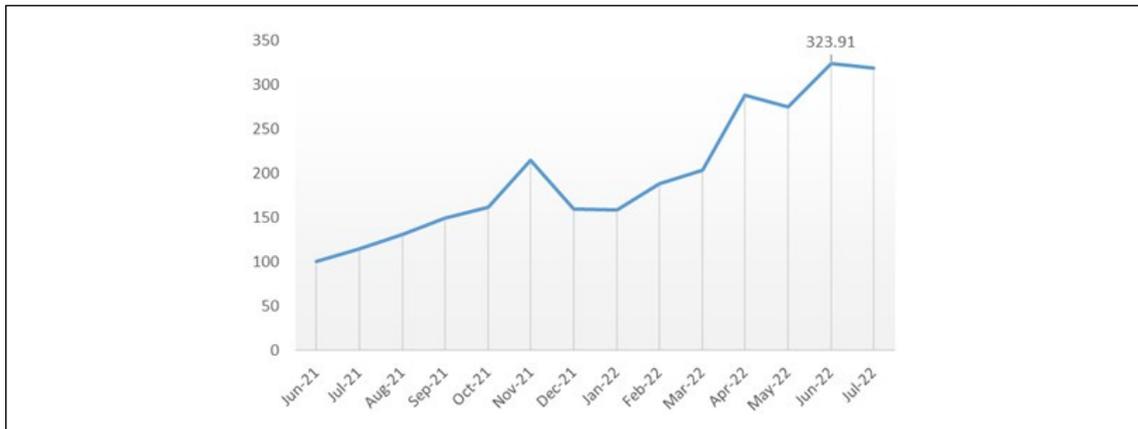
구분	2021년 1~8월	2022년 1~8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수입	122,982.0	159,678.1	29.8
석유·가스	15,361.4	27,620.9	79.8
비석유·가스	107,620.6	132,057.2	22.7
무역수지	20,714.6	34,918.8	68.6
석유·가스	△7,520.5	△16,755.4	122.8
비석유·가스	28,235.1	51,674.2	83.0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품목은 석탄(전체 수출의 약 30%)이며, 전 세계 석탄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석탄 가격 상승효과를 누리는 중
-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와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한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HBA) 추이 〉

(단위 : USD/톤)



주 : HBA는 Harga Batubar Acuan의 약자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준거가격을 의미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 글로벌 원자재 시장 불안이 호재로 작용,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박 심화

- 루피아 통화 가치는 선방 중이나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
 - 인도네시아 루피아(Rupiah)는 고위험 통화로 평가되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단행될 때마다 통화 가치의 급락 경험
 - 그럼에도 '22년 1월부터 8월까지 달러 대비 루피아 낙폭은 4%로 방어
 - * '22년 1~8월 원화는 20%, 태국 바트화가 10%가량 하락한 것과 대조적

- 강달러화를 버텨낸 요인으로는 석탄, 천연가스, 팜유 등 원자재 수출 호조 영향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의 환율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판단
- 그러나 올해 9월 들어 미 달러당 14,000루피아 선이 무너지며, 9월 30일 15,575루피아까지 급락해 위기감 팽배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3.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2022년 10월 4.75%로 상향 조정

〈 미 달러 對루피아 환율(左) 및 금리(右) 추이 (2022.1~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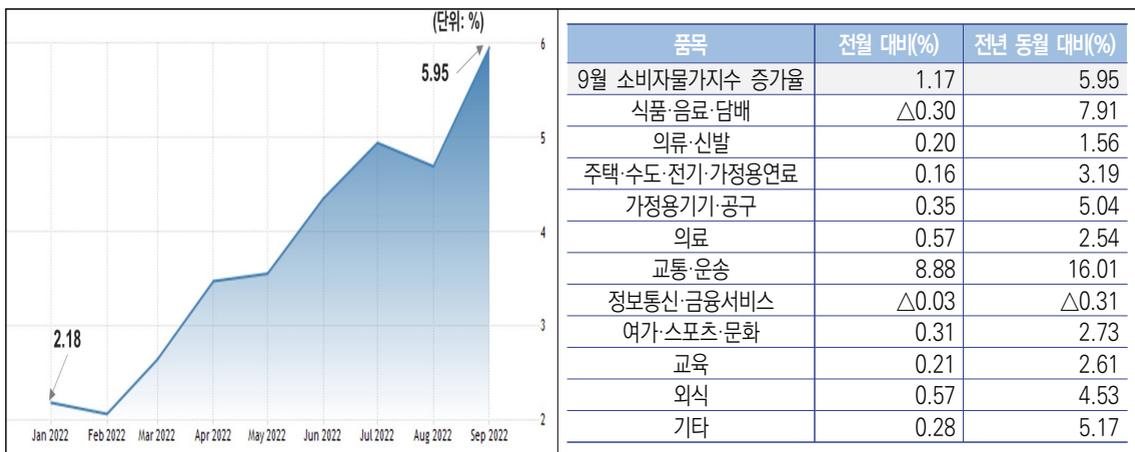


* 자료 : (左) Google Finance, (右)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조회 기준일 '22.10.20)

● 인플레이션 압력 속, 휘발유 가격 상승 논란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발표한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5%, 전월 대비 1.17% 증가를 기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인 2~4%를 크게 상회
- 통계청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정부의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휘발유 및 운송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언급
- * 교통·운송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6.01% 증가

〈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추이 (2022.1~9)(左) 및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



자료 : (左) Trading Economics (조회 기준일 '22.10.20), (右)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다. 산업 환경

■ 인도네시아 산업 개황

- 제조업, 광산업, 농림어업 등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2년 2분기 기준, 제조업이 17.8%로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광산(13.1%), 농림어업(12.9%), 도소매(12.7%), 건설(9.1%) 등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

(단위 : %)

산업 구분	2021	2022.2Q
제조업	19.3	17.8
광산	8.9	13.1
농림어업	13.3	12.9
도소매	12.9	12.7
건설	10.4	9.1
운송 및 창고	4.2	4.8
정보통신	4.4	4.1
금융 서비스	4.3	4.1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 '22년 모든 부분의 산업에서 연간 성장 예상
 - 코로나19 회복으로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재개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분기별 성장률 추이 〉

(단위 : %)

분야	2020	2021	2022e	2023e
농림어업	3.7~3.9	3.3~3.9	3.6~4.0	4.0~4.2
광업	1.8~2.0	0.7~1.7	1.8~2.3	3.2~3.5
제조업	4.9~5.4	4.7~5.5	5.5~6.1	5.4~6.0
전기, 가스, 식수	4.1~4.4	4.8~5.8	5.5~6.3	5.6~6.0
상하수도·폐기물 관리·정화활동	3.9~4.2	4.6~5.6	5.2~5.7	5.4~5.7
건설	5.6~5.9	5.3~6.5	6.0~6.9	6.3~6.9
도소매업	5.3~5.7	4.3~5.3	4.8~5.8	5.0~5.6
운송 및 창고	7.0~7.1	5.9~8.2	7.5~8.1	8.5~9.5
숙박 및 레스토랑 (식음료)	5.8~6.3	5.5~7.9	6.0~6.9	6.6~7.3

분야	2020	2021	2022e	2023e
정보통신	7.1~7.5	8.3~10.1	9.8~10.3	7.8~8.3
금융 서비스	6.1~6.6	5.6~6.8	5.5~6.0	3.4~3.8
부동산	4.8~5.1	4.9~5.9	5.3~5.8	4.3~4.8
비즈니스 활동 / 기업 서비스	8.3~8.6	8.9~9.9	7.5~8.2	4.7~5.3
정부 행정 및 사회 보험	4.4~4.7	4.2~5.2	3.2~3.9	2.3~2.6
교육 서비스	5.1~5.4	4.5~5.5	5.5~6.3	3.3~3.8
인간의 건강과 사회 서비스	7.5~7.7	4.7~5.5	6.9~7.5	8.7~9.3
기타 서비스	9.0~9.1	6.6~7.7	6.7~7.5	5.9~6.5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제조 부문은 2023년에 5.4%에서 6.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a) 소비자 구매력 회복으로 식품 및 음료 산업의 회복, (b) 국내 및 수출 가공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c) 국내 제품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출 지원이 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건설 부문은 정부 및 민간 건설 활동이 모두 성장하였으며, 정부 자본 지출 가속화 및 자금 조달 증가에 탄력을 받고 있음
- 농업 및 광업 부문은 강한 수출 수요와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는 2023년 특히 광물 부문에서 다운스트림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2020년 니켈 수출을 금지한 후 2023년에 주석 및 구리 등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으로 투자 증가와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 제고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기초 금속)

● 기초 금속 산업 동향 및 전망

- '21년 기준 기초 금속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4.2%를 차지하여 식음료(38.1%) 및 타 분야*에 이어 6위를 차지
* 화학, 제약 및 전통 의약(11.5%); 금속 제품, 컴퓨터, 전자, 광학 및 전기 장비(8.7%); 운송 차량(8.5%); 및 섬유(6.1%)
- 기초 금속 시장은 '22년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22년 상반기 국가 제조산업은 4.0% 성장한 반면 기초 금속 산업은 15.8%의 성장을 달성
- '22년 1~8월 기초 금속 수출액은 395억 달러로 전년 동기인 252억 달러 대비 56.7% 증가
* 기초 금속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 1,946억 달러 대비 20.2%를 차지 (기초 금속 제품 HS Code 71~81, 26 기준)

〈 기초 금속 산업 성장 추이 〉

(단위 :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
GDP 비중	0.8	0.7	0.8	0.8	0.8
성장률	9.0	2.8	5.9	2.8	15.8
외국인 투자	2,219.1	3,558.7	5,969.2	6,974.4	5,682.7
내국인 투자	337.6	238.2	407.1	15,665.8	6,311.4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25~'35년에 인도네시아는 철강 생산 능력을 '21년 1,200만 톤보다 증가한 2,500만 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산업부는 Krakatau Steel-Posco, Dexin Steel, Fuhai Indonesia, Hebei Bishi Group 및 Gunung Group의 5개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2,920만 톤의 철강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유치

〈 2023년 인도네시아 금속산업 개발 목표 〉

목표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	산업 자체 경쟁력 증진	역량 강화
지표	1. 연간 성장률: 5.1% 2. GDP 기여도: 1.5% 3. 고용 인원: 957.7명 4. 수출액: 190.7억 달러	1.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 비중: 0.7% 2. 근로자 생산성: 1인당 2.4억 루피아 /연간 3. 투자액: 140.4조 루피아	1. 자국 부품 비중: 65.1% 2. 수출액 성장률: 7.8% 3. 수출 기여도: 8.7% 4. 비석유 분야 수입 비중: 8.9%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화학·제약)

● 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인도네시아 화학산업은 나프타 분해시설 등 주요 설비 및 인프라 부족으로 70% 이상 수입에 의존
- LX인터내셔널은 2022.8월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찬드라 아스리와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친환경 차량/항공용 연료) 현지 생산 협력 추진
- 한국 롯데케미칼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인니 석유화학산업 진출 확대
*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조 4천억 원 출자 ('21.10)

● 제약 산업 동향 및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로 제조업에서 식음료에 이어 가장 큰 비중(11%) 차지
- 인구 및 소득 증가, 건강보험 시행 등의 펀더멘털 개선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약 산업은 '21년 전년 대비 10% 성장, '21~'25년 연평균 5.5% 성장 전망
- 의약품 원료 90% 수입 의존, 다만 '22년부터 TKDN(국산부품 사용 비중) 규제 강화, '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로 수입 비중은 감소할 전망

< 화학·제약 산업 성장 추이 >

(단위 :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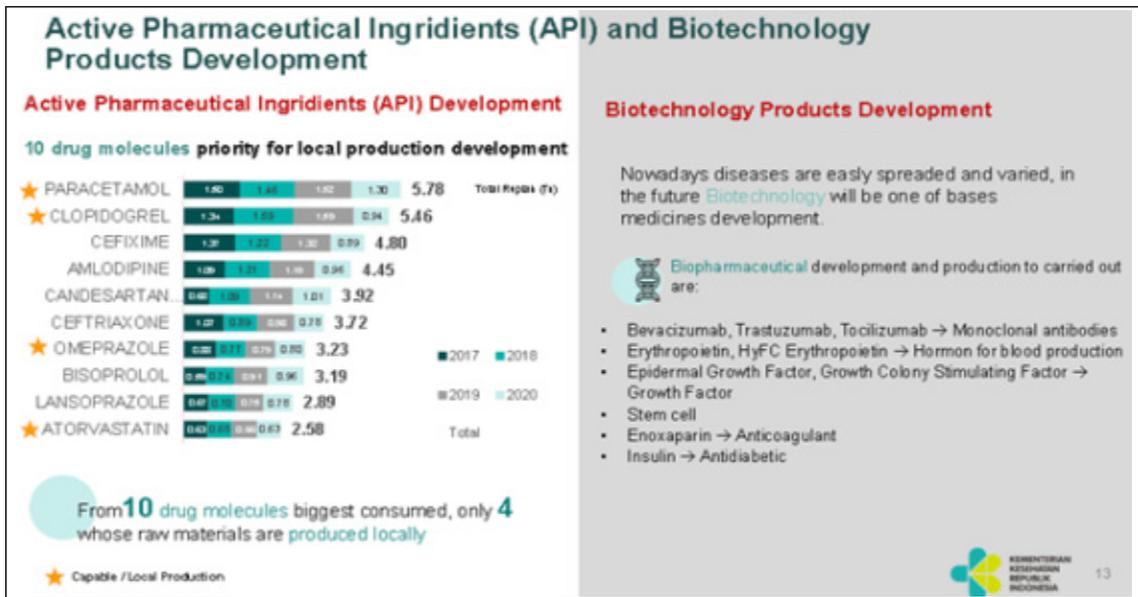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GDP 비중	1.6	1.7	1.9	2.0	1.9
성장률	-1.4	8.5	9.4	9.6	-
외국인 투자	1,939.3	1,486.1	1,742.5	1,656.5	1,750.5
내국인 투자	995.4	632.3	1564.3	1,600.3	897.8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이슈

- 인도네시아 산업부 및 보건부에서는 원료의약품·화공약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다며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

< 인도네시아 10대 중점 개발 원료의약품과 자체 조달 가능 현황 >



주 : ★ 표시가 인니에서 자체 조달 가능한 원료의약품

자료 : 인도네시아 보건부(KOTRA 주관 메디컬 웨비나, '21.9)

- (의약) '20년부터 수입품이 TKDN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 '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시행, 논할랄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소
 - * 의약품 TKDN(국산부품 사용 비중) 계산법이 비용에서 가공 기반으로 변경
- (화학) 천연자원 수출에서 탈피, 부가가치를 높은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중점, '25년까지 파푸아 빈투만 가스, 북부 수마트라 세일가스 등 업스트림 석유화학 플랜트 확장 구축 프로젝트 시행

〈2021~2030 인도네시아 화학 분야 개발 로드맵〉

구분	1차(3~5년)	2차(5~10년)	3차(10~15년)
달성 연도	2021	2025	2030
목표	기초 화학제품 수입 대체 30% 이상	합성화학 산업 육성, 제품 판매 확대 등	세계 5대 바이오연료 생산회사 육성
주요 내용	1. 수입 대체를 통한 기초 화학물질 수입 감소 2. 나프타, 올레핀, 아로마핀 등 기초화학물질 생산 확대 3. 섬유산업 지원을 위한 합성섬유 생산 확대	1. 중간화학제품 생산 확대 2. 합성섬유 생산 확대 3. 기초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1.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2.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 최적 조정 3. 다국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화학기업 육성
주요 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섬유, 합성레진, 합성고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바이오 원료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섬유)

● 섬유산업 동향 및 전망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나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 공장 가동이 50% 수준으로 제한되는 등 산업 전반의 성장 저해, 부진 장기화
 - * 20년 인도네시아 섬유, 가죽 제품 시장 규모 7% 감소, 의류는 5% 감소
- 다만, '20년 부진했던 섬유산업 투자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세(11.6%), 향후 섬유 산업 부진이 다소 타개될 것으로 전망됨
 - * '21년 방직업 가동률 70% 회복 (인도네시아 산업부)

〈 섬유 산업 성장 추이 〉

(단위 :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GDP 비중	1.1	1.3	1.2	1.1	1.1
성장률	8.7	15.4	-8.8	-4.1	-
외국인투자	305.4	238.9	279.8	312.2	235.6
내국인 투자	268.4	87.5	146.1	135.1	177.8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입 제품 판매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2021년 무역부 장관 제50호 규정 개정
 - * Shopee Indonesia 하집, 무슬림 상하의, 바틱 등 제품에 대해 수입제품 판매 금지, LAZADA 섬유, 패션, 식품, 수공예 분야 전반의 수입 제품 판매 금지

- 수입산 의류 섬유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20.6월~'22.11월), 특별 관세 부과
 - * 섬유 1미터당 한화 약 977원
-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핵심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2030 인도네시아 섬유 분야 개발 로드맵 〉

목표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	산업 자체 경쟁력 증진	역량 강화
지표	1. 연간 성장률: 5.89% 2. GDP 기여도: 1.37% 3. 고용인원: 5,190,000명 4. 수출액: 213.6억 달러	1.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 비중: 3.86% 2. 근로자 생산성: 1인당 36.02백만 루피아/연간 3. 투자액: 27.27조 루피아	1. 자국 부품 비중: 64.60% 2. 수출액 성장률: 6.38% 3. 수출 기여도: 10.61% 4. 비섬유 분야 수입 비중: 4.13%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도·소매 유통)

● 도·소매 유통 산업 동향 및 전망

- 제조업, 농수산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부요인 및 경제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사회활동 제한 조치로 지난 2년간 불황이 이어졌으나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음

〈 도·소매·유통 산업 성장률 추이 〉

(단위 :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GDP 비중	10.4	10.4	10.6	10.6	10.6
성장률	5.0	4.8	-1.3	3.1	-
외국인 투자	609.3	421.2	434.1	463.8	427.3
내국인 투자	479.8	910.9	1163.1	1,536.5	1,197.7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내년 목표 및 정부 중점 정책

- '21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국내 투자는 32% 급증하며 '22년 이후 시장 전망은 긍정적
- 다만,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현재 11%에서 '25년까지 12%로 점차 올릴 계획으로 도·소매 유통 산업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관광)

● 관광 산업 동향 및 전망

- 관광 부문은 이동성 회복과 함께 숙박 및 식음료 부문의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숙박 및 식음료 공급 부문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 국제 행사 및 MICE(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의 촉진과 국가 축제의 추진으로 6.6~7.3% 범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 산업 성장률 추이 〉

(단위 :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및 성장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상
GDP 비중	4.8	4.1	4.2	4.3
외국인 투자	625.9	441.1	432.2	250.9
내국인 투자	16,163.1	10,203.1	17,819.3	12,233.7

주 : 타 산업과 달리 관광산업 성장률 미발표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내년 목표 및 정부 중점 정책

- 인니 관광창조경제부는 2023년 해외 관광객을 350만~74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목표인 180만~360만 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임
- 2022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기록된 총 국제 관광객 수는 190만 명임

〈 2022년 국제 관광객 (2022.1~8월) 〉

(단위 : 명)

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총계
589,015	60,897	46,781	31,543	1,130,630	1,858,866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관광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발리에서 ANOC World Beach Games(AWBG*) 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주도의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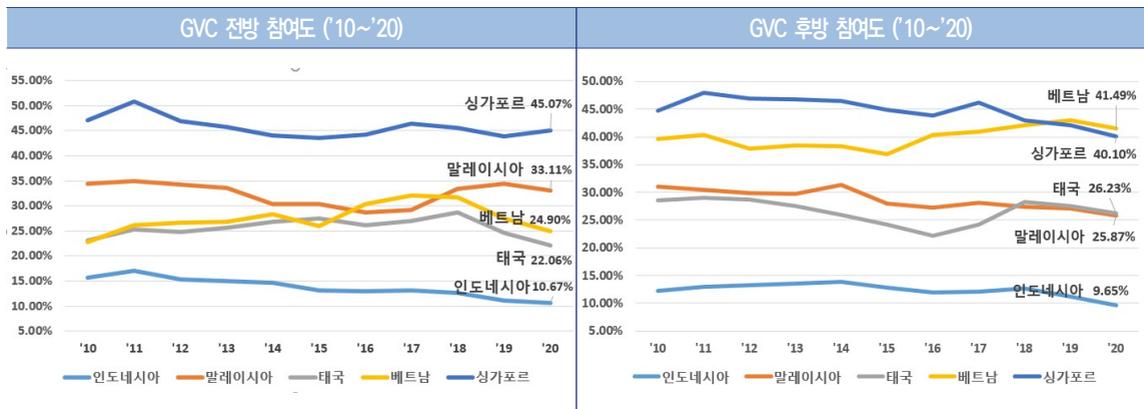
* AWBG : 아쿠아슬론, 핸드볼, 비치 풋볼, 비치 테니스, 발리볼, 수구 등 10가지 필수 스포츠 행사

라. 정책/규제 동향

■ 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유망 제조산업 육성 정책 지속 추진

- 자원(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제품 생산을 통한 GVC(Global Value Chain) 상류 포지셔닝 추구
 - 인도네시아 GVC는 원자재나 1차 소재를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스트림(Upstrea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운스트림 분야는 단순 조립 비중이 높음
 - GVC 참가도는 통상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후방 참여도는 타 아세안 국가 대비 낮은 편

〈 아세안 주요국 아세안 역내 GVC 전/후방 참여도 비교 ('10~'20) 〉



자료 : ADB MRIO('21.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데이터 가공

- 실제로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원부자재로 총수입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9
소비재	17,181	16,454	14,656	20,185	14,597
가공 원부자재	141,581	126,356	103,210	147,384	138,456
자본재	29,949	28,466	23,703	28,627	26,432
총합	188,711	171,276	141,569	196,196	179,486

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후방 GVC 재편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① 원자재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

● (개발 방향) 광물, 석탄, 팜유 위주 다운스트림 강화

- 매장량이 풍부한 해당 광물 위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도모

〈 2023 인도네시아 지역별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로드맵 〉

수마트라	칼리만탄	자바-발리	누사틍가라	술라웨시	말루쿠	파푸아
팜오일 고무 커피 코코넛 카카오 사탕수수 수산물	석탄 석유가스 보크사이트 지르콘사 고무 팜오일 철광석 수산물 코코넛 후추 커피 카카오 석영사	수입용 제품 첨단제조산업품	채광물 수산물 농산물 신재생에너지	니켈 철광석 코코넛 후추 육두구 정향 커피 사탕수수 팜오일 등나무 아스팔트 천연가스	니켈 코코넛 정향 육두구 수산물	커피 카카오 육두구 케나프 쇠고기 코코넛 수산물

자료 :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계획(RKP 2023)

● (광물 개발 세부)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등 자원 개발을 위한 제련소 건설

- '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가 '14년부터 시행 중
- 해당 법령을 통해 국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 의무화
- '17년 일부 광물 원자재가 수출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5년 이내 해당 광물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 (조건 미이행 시 광물 수출 허가 취소)
- 추가로 니켈과 보크사이트 원자재 형태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 현지에 제련소 건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
- * 니켈('20년부터 수출 금지), 보크사이트('23.6.11.부 수출 금지 예정)
- 제련소 건설 확대로 인도네시아 광물 중간제품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페로니켈과 니켈 분야가 급증

〈 인도네시아 광물 생산 추이 〉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석	82,875	76,389	54,265	34,500	70,000
니켈선철	323,989	781,017	860,484	799,600	831,000
페로니켈	573,159	1,151,741	1,479,971	1,585,000	1,660,000
니켈메트	75,708	72,015	91,705	82,300	83,900
금	135	109	29	79	95
은	309	488	158	397	427
음극재(Cathode)	230,924	180,204	269,032	289,500	291,000

주 : 2022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생산 목표량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원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수출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HS코드)	2018	2019	2020	2021	2022.8
철과 강철 (72)	5,756	7,387	10,862	23,268	22,645
철과 강철 부속 (73)	1,322	1,258	1,191	1,604	1,446
구리 및 제품 (74)	1,961	1,844	1,895	2,875	2,528
니켈 및 제품 (75)	791	813	808	2,356	6,151
기타 비금속 (80)	1,551	1,283	1,130	3,099	2,084

주 : 2021년은 8월 누적 수출액 기준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21년 기준 23개의 광물 제련소가 있으며 '22년 28개, '24년까지 53개 제련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광물 제련소 건설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 〉

(단위 : 개수(누적 건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f	2023f	2024f
구리	2	2	2	2	2	4	4
니켈	10	11	12	16	17	30	30
보크사이트	2	2	2	2	3	11	11
철	1	1	1	1	3	4	4
망간	1	1	1	1	1	2	2
납-아연	0	0	1	1	2	2	2
총계	16	17	19	23	28	5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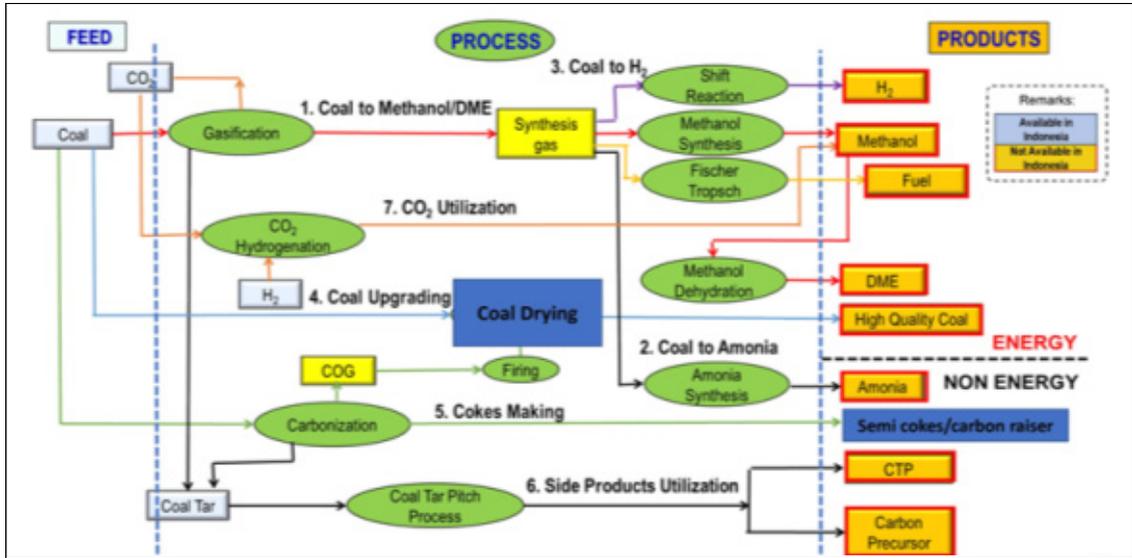
주 : 2022년부터는 정부 예상치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5)

● (석탄 개발 세부) '30년까지 석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국 중 하나로 풍부한 매장량 보유*
 - * 중국, 인도, 미국, 호주 등에 이은 5위 규모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석탄(지하석탄 포함) 가스화, 코크스 제조, 석탄 액화, 석탄 품질 개선, 연탄 제조, 석탄수 혼합 등 최소 7가지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중
- '30년까지 총 3,760만 톤(공급원료/투입량)의 생산 능력 확보 목표

〈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계획 〉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친환경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9가지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논의 중인 인센티브 〉

연번	세부내용
1	가스화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 최대 0%까지 로열티 부여
2	가스화용 석탄에 대한 특별 가격 적용
3	가스화 프로젝트 경제 수명에 따른 광업 허가 유효기간 조정
4	석탄가스 경제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5	합성가스와 같은 석탄 가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적용
6	EPC 회사들의 현지 부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7	석탄 활용 청정에너지 DME(디메틸에테르) 벤치마크 가격과 설정
8	대체되는 LPG 비중에 따라 LPG 보조금 일부를 DME로 이전
9	해당 제품 구매 보장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팜오일 개발 세부) 단순 팜오일 원유 수출에서 팜오일 산업 중심지로 개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 및 수출국
 - * '20년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은 174억 달러 규모, 생산은 48.3백만 메트릭톤으로 세계 1위
- 하지만 팜유 대부분은 원유(Crude Palm Oil)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환류되는 부가가치가 낮은 편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팜유 파생상품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운스트림 개발 추진 중

〈 팜오일 품목별 개발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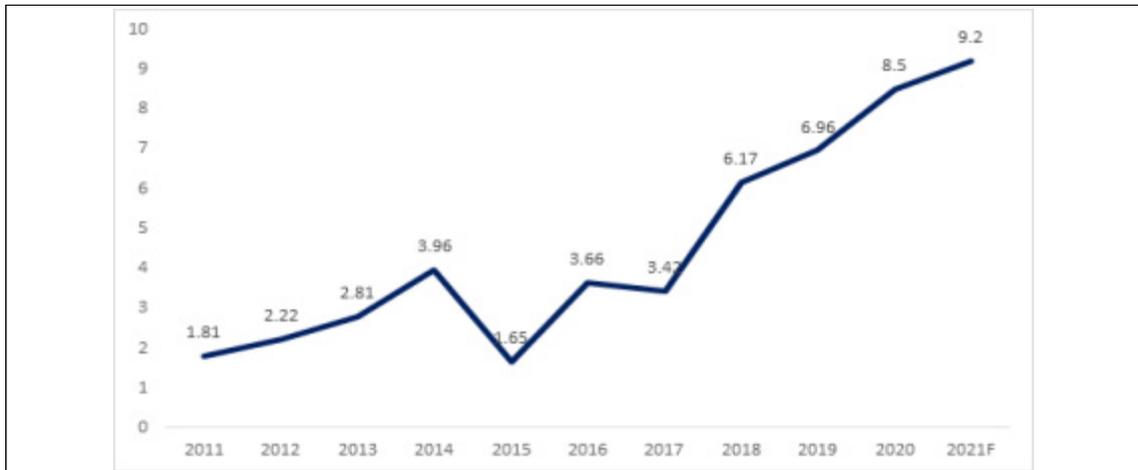
올레오식품(Oleofood)	올레오케미칼(Oleochemical)	바이오연료(Biofuel)
팜오일을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팜유, 비타민 A, 마가린, 아이스크림, 코코아, 쇼트닝 등)	올레오케미칼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 계면활성제, 윤활제, 기타 소재 등)	바이오 연료 최종재를 얻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팜유 원유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물질은 '11년 54가지에서 '20년 168가지로 크게 증가

〈 팜오일 중간 품목 생산량 추이 〉

(단위 : 백만 킬로리터)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30년까지 녹색 연료 생산량을 올해 대비 65% 증가한 1,400만 킬로리터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 바이오디젤 의무함량 비중을 40%까지(B40) 증대할 계획임

②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지속 개발

- 5대 중점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
 -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를 추가해 7대 중점 분야로 확대*
 - * 새로 추가된 2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21.10)
 - 선정된 제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
 - * 새로 추가된 분야 제외 5대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13% 차지('19)
 -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하노버 메세 2021(Hannover Messe)에 국가관을 구성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 소개 및 투자 유치 활동 전개
- 주요 분야별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추진
 - '21년 들어 주력 산업별로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산업 및 참가 국영기업 〉

분야	핵심 국영기업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식음료	PT. Rajawali Nusantara Indah	○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2017)	○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섬유 및 봉제	-	○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 기술 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 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자동차 (전기차)	PT. PLN(에너지) PT. Inalum(광물) PT. Aneka Tambang(광물) PT. Pertamina(석유)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물)	○ 높은 일본차 기업 지배력 탈피 ○ 공해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 자급자족 ○ 기술 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린카, SUV) 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
화학	PT. Biofarma	○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한 자국 기업의 역량	○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 달성 ○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생산 능력 개발
전자	PT. Telkom Indonesia PT. Pertamina	○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 선진국과의 큰 격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협업 ○ 단순 조립이 아닌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 생산 능력 배양 ○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I), KOTRA 수리비아 무역관, Perpres No.18/2020

③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 국가 중점 육성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 인근 지역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투자 시 유·무형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개발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사용 효율 극대화 추진
 - '21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28개의 산업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4년까지 최소 27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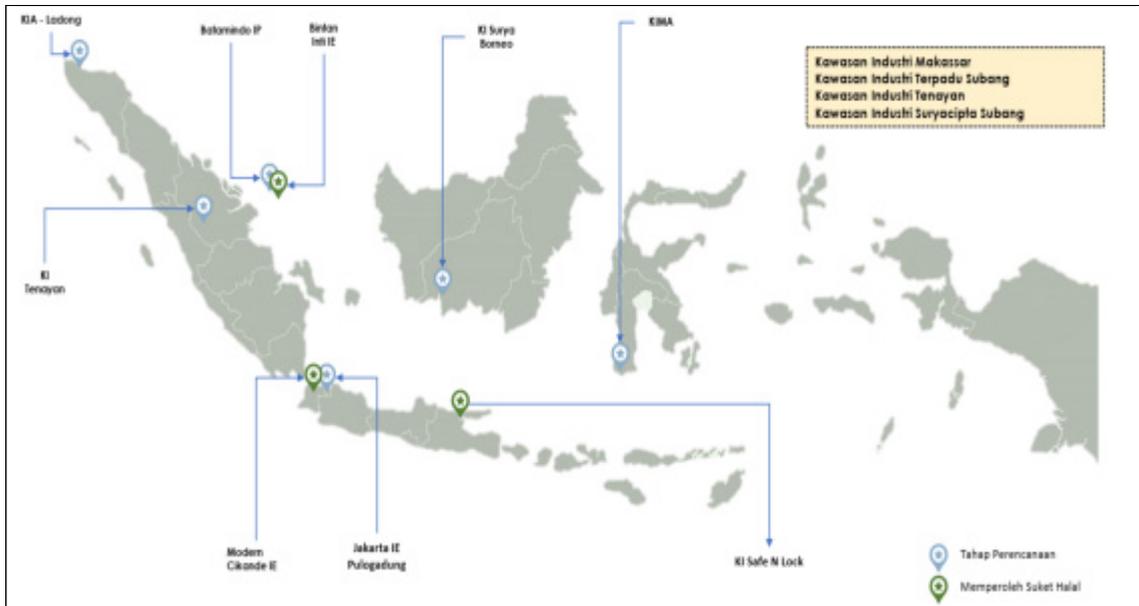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개발 계획 〉



자료 :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 특별경제구역 확대
 - 수출가공, 물류, 공업, 기술개발, 관광, 에너지 등 목적에 따라 달리 지정된 경제특별구역 확대 추진
 - '22년 10월 기준, 12개 특별경제구역이 운영 중이며 6개가 개발 중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국가정보 참조
-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할랄 전용 산업단지
 - 할랄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인력이 입주한 할랄의 중심지로 개발 중
 - 해당 산업단지 입주 시 할랄 인증과 관련한 유·무형적 인센티브* 논의 중
 - * 할랄 인증 지원, 할랄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할랄 필수 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 정부에서는 '24년부터 일부 품목별로 할랄 인증 표기가 의무화되고 차후 할랄 국가간 교차인증이 지원되는 경우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산업단지 개발 담당자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21.10)
 - '21년 10월 기준, 2곳의 할랄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향후 6곳이 추가될 전망

〈 인도네시아 할랄 전용 산업단지 추진 지역 〉



자료 :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5), 인도네시아 산업부

■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 2021 인도네시아 국가온실가스 로드맵(NDC) 개정안 발표('21.10)
 - 자체 감축(1안)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감축(2안)으로 목표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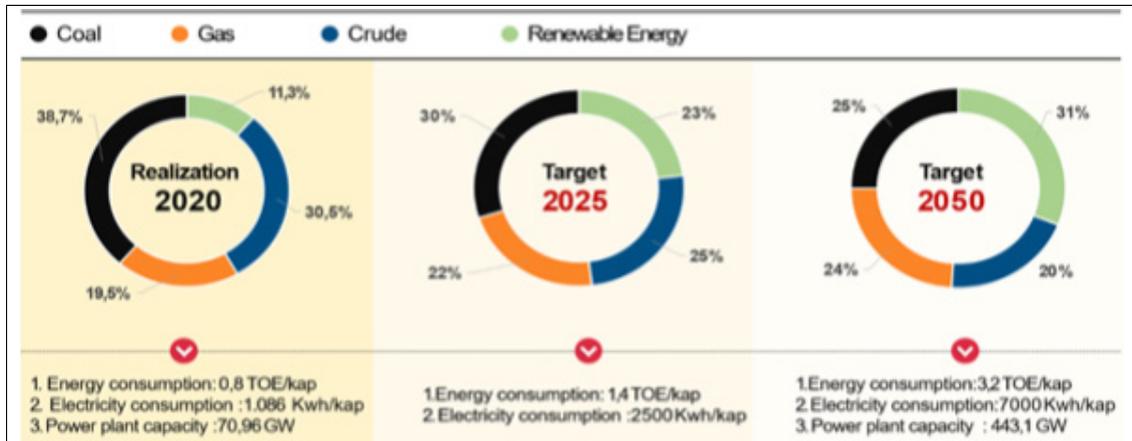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NDC)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주요 내용
2030	① BAU 대비 29.0% (29 bil ton CO ₂ eq → 20 bil ton CO ₂ e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BAU는 2,869.0백만 톤 • (조건 없이) BAU 대비 29.0%인 834백만 톤 감소 추진 • (조건부) BAU 대비 41.20%인 1,185.3백만 톤 감소 추진
	② BAU 대비 41.2% (29 bil ton CO ₂ eq → 17 bil ton CO ₂ eq)	

자료 :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public of Indonesia('21.10)

- 인도네시아 최초의 장기저탄소전략(LEDs) 수립('21.8)
 - 작년 발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이 축소되며 순연
 - '60년까지 국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 크게 세 가지 예상 상황(현행 유지, 일부 감축, 파리협약 목표 준수)을 가정해 정책 수립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저탄소 기술 개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부품과 같은 신산업 부품의 국산화 등이 담김
 - NDC와 마찬가지로 11월 UN 기후변화회의 총회에 전략보고서로 제출
- 전력 조달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추진
 - '14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년 23%에서 '50년 31%까지 확대하는 에너지믹스계획을 수립

〈 인도네시아 에너지믹스계획 〉



자료 : Peraturan Pemerintah Nomor 79, Tahun 2014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서 10월 발표한 10개년 전력조달계획에 따르면 '19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향후 전력 조달 목표가 두 배 가까이 증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vider, IPP) 비중을 확대

〈 신재생에너지와 재래식에너지 전력 발전 향후 용량 확대 예상치 비교 〉

구분	RUPTL 2019~2028				RUPTL 2021~2030			
	확대용량(MW)		비중(%)		확대용량(MW)		비중(%)	
	PLN	IPP	PLN	IPP	PLN	IPP	PLN	IPP
신재생(EBT)	7,907	8,807	47%	53%	9,144	11,779	44%	56%
재래식	14,822	24,859	37%	63%	5,125	14,527	26%	74%

주 : 세부 내용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동향' 보고서 참조

자료 : 인도네시아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21.9)

- 이 외에도 디젤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격보전 조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법령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옥상 태양광 생산 전력 PLN에 판매 가능 한도가 65%에서 100%로 증가
- 내년 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
 - * 석유·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메트릭 톤당 2.1달러의 탄소세 부과

● 폐기물(도시 고형 폐기물 위주) 감축 추진

-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5년까지 폐기물 30% 감소 및 폐기물 처리 70%를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특히 생산자의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한 '19년에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관한 규정(No.P.75/2019)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
- 또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분야(식·음료, 섬유, 건설, 도·소매, 전자제품) 순환 경제 개발 노력 중

● B3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규정 개정

- 환경산림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B3 폐기물 배출량은 2억 7천만 톤으로 '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 선진국들로부터 B3 폐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

〈 B3 폐기물 수입 동향 〉

(단위 : 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09,423	204,557	4,809,108	20,213,313	85,873,810	81,965,146

자료 :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4월 환경부령 6호를 통해 B3 폐기물을 생산자와 관련 당사자의 처리 의무를 규정
- B3 폐기물 생산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 가능한 사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정부는 B3 처리 가능한 시설을 '25년 25곳까지 확충 목표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증 제도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 허가와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음
-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으로 지정한 해당 제품에 한해 필수 유통 인증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24년부터 표기 여부가 필수인 할랄 인증
 - 정부 규정에 따라 '19년 10월 17일부로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표기 유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들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담당 기관인 할랄청(BPJPH)로부터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함
 - * 2024.10.17(식품, 음료 인증 의무화), 2026.10.17(의약품, 화장품 등 의무화)

- 수입 대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
 -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산업 분야 국산 부품 사용 비중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 원자재 수입 비중 조정 목표 〉

(단위 : %)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속	11.36	10.92	10.44	9.92	9.36
식음료	0.43	0.43	0.43	0.42	0.41
섬유	4.27	4.20	4.13	4.04	3.94
화학, 의약	2.07	2.06	2.04	2.02	1.99
석유 관련	13.06	12.76	12.42	12.04	11.62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

■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법) 시행령 발표

- '20년 11월 공포된 일자리 창출 특별법 세부 시행령이 '21년 2월 16일 공포
 -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짐
 - 옵니버스법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정표라면, 옵니버스법 시행령은 이정표 안에 있는 세부 안내표라고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은 ①외국인 투자 분야 개방, ②고용환경 개선, ③위험에 기반한 인허가 절차 변경과 OSS 플랫폼으로 인허가 처리 일원화 등임

〈 옵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분야	법령 원문	주요 내용								
투자	Perpres No. 10 Tahun 2021 (투자 분야 개방)	○ 기존 20개 투자 금지 업종 → 6개로 대폭 축소 ○ 4가지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투자 우대 분야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 금지</td> <td>○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td> </tr> <tr> <td>조건부 투자 가능</td> <td>○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td> </tr> <tr> <td>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td> <td>○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투자 금지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구분	주요 내용							
		투자 금지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분야	법령 원문	주요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50 399 698 433">구분</th> <th data-bbox="698 399 1304 433">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0 433 698 550"></td> <td data-bbox="698 433 1304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 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td> </tr> <tr> <td data-bbox="550 550 698 707">투자 우대</td> <td data-bbox="698 550 1304 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td> </tr> <tr> <td data-bbox="550 707 698 747">전면 허용</td> <td data-bbox="698 707 1304 747">○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td> </tr> </tbody> </table> <p>○ 금융, 광업과 같이 개별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변동사항 없음 ○ 현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 부분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나 인허가에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p>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 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투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 허용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투 법인이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해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칙 발표 예정 											
투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 허용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BKPM Regulation No. 4 Tahun 2021 (납입자본금액 변경)	<p>○ 해당 규정 제21조에 따라 납입자본금 상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5억 루피아 → 100억 루피아로 상향 - 업종과 상관없이 규정 시행일('21.6.2) 이후 설립된 모든 외투 법인에 적용(소급 규정 없음) 										
	PP No. 5 Tahun 2021 (사업 인허가)	<p>○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Online Single System)으로 일원화</p> <p>○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인허가 요건을 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550 1064 698 1098">구분</th> <th data-bbox="698 1064 1304 1098">인허가 필요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50 1098 698 1132">저위험도</td> <td data-bbox="698 1098 1304 1132">○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td> </tr> <tr> <td data-bbox="550 1132 698 1169">중저위험도</td> <td data-bbox="698 1132 1304 1169">○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td> </tr> <tr> <td data-bbox="550 1169 698 1239">중고위험도</td> <td data-bbox="698 1169 1304 1239">○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td> </tr> <tr> <td data-bbox="550 1239 698 1276">고위험도</td> <td data-bbox="698 1239 1304 1276">○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 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 허가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 허가											
노무	PP No. 34 Tahun 2021 (외국인 고용) PP No. 35 Tahun 2021 (기간제, 아웃소싱)	<p>○ 외국 인력 고용 허가 면제 대상 범위 일부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 기간 연구 활동 등 ○ 외국인 인력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무자로 분류되는 것에는 변동 없음 <p>○ 퇴직 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p> <p>○ 근로계약 허용 기간에 관한 규정 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년 기간 내 계약 체결 및 연장 가능 <p>○ 근로계약 허용 업무 관한 내용 실질적 변경 없음</p> <p>○ 최대 초과 근무 허용 시간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4시간(주 18시간)으로 확대 <p>○ 장기 근속 직원 대상 주어진 장기근속휴가 폐지</p> <p>○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시 일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던 퇴직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 										

분야	법령 원문	주요 내용
		*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통지 절차 추가 - 근로계약 해지 사유 일부 변경 ○ 아웃소싱 허용 업무 범위 관한 제한 삭제 -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했던 아웃소싱이 전 분야에서 가능
	PP No. 36 Tahun 2021 (임금 지급)	○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 폐지 ○ 주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 주지사에게 일임 -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계산법을 활용해 연간 최저임금 결정
	PP No. 37 Tahun 2021 (실업보험 프로그램)	○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 (Job Loss Security)제도 신설

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원본과 출처를 참고 바람

자료: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2021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노사발전재단), 인도네시아 투자 개방과 허용범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로드맵 2021~2024

-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개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①인프라 구축, ②전자 행정 구축, ③디지털 인재 육성, ④디지털 사회 개발 등을 추진
 - * 교통, 관광, 무역, 금융 서비스, 미디어엔터, 농·어업, 스마트시티, 교육, 헬스케어, 산업
- 디지털 전환의 문제로 지적받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육지와 바다에 광섬유 케이블 연결을 통해 12,548곳 산간지역 디지털 전환 지원
-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통신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 추진

● 인도네시아 지불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2025)

- '19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①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 banking 구축, ②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③도매 결제 및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④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⑤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비전으로 구성

〈 인도네시아 지불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 주요 내용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커져가는 정보 보안 우려에 따른 정보보안법 개정
 - 최근 다수 디지털 플랫폼 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큰 이슈로 떠오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유럽 기준을 준용한 정보보안법을 개정 추진
- 급속도로 성장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정
 - '16년 이후부터 전자상거래를 필두로 핀테크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관련 정책과 규제 입안
 - 핀테크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2P 분야 신 규정 내년 발표 예정(초안 발표 후 핀테크 협회와 세부 내용 조율 중, '21.10)

〈 인도네시아 P2P 신 규정 초안 〉

주요 변경 사항		
제7조	자금조달제한 규정 신설	• 각 투자자와 관계인은 잔고의 25%이상 투자 금지
제8조	가승인/승인 관련 변경	• 등록(가승인) 과정 삭제, 즉시 라이선스 인가 과정 진행
제11조	의사결정기구(BOD, BOC) 조정 방안	• BOD : 기존 최소 1명 → 최소 3명 - 금융업 관리자 경험 1년 → 2년 - 겸직 불가
	BOD, BOC 구성 관련 (기존 : 각각 최소 1명 (금융산업 1년 이상 경험))	• BOC : 기존 최소 1명 → 최소 3명 - 관리자 경험 2년 - 겸직 1개까 가능
제28조	아웃소싱 활용 부문	• 본업관련 지원Sector에만 활용가능
제38조	대출포드폴리오 부문	• 연간 총 대출의 최소 40%는 생산성 대출 - 향후 3년간 점진적 적용 (15%→30%→40%)
		• 연간 총 대출의 25%는 자바 외 지역 대출 - 향후 3년간 점진적 적용 (15%→20%→25%)

자료 : OKP2P Indonesia, KOTRA 핀테크 웨бина 발표자료

■ 국내 기업 수출선 다변화와 외자 투자 유치를 위한 통상 협력 지속

- 작년과 올해 한-인니 CEPA를 포함해 다양한 협정이 발효되었거나 비준 완료됨

〈 인도네시아 통상 협정 체결 현황 내역 (2020~2021) 〉

협정명	상대국	진행 단계
인니-호주 CEPA	호주	2020.7.(발효)
인도네시아-EFTA CEP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2021.11.(발효)
한-인니 CEPA	한국	2021.6.(한국 비준) 2022.8.(인니 비준)
RCEP	ASEAN + 5개국(한·중·일)	2022.2.(발효)

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현지 언론 기사 종합

- 현재 약 10건의 협상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신규 통상 협정 추진 내역 〉

협정명	진행 단계	협정명	진행 단계
인니-EU CEPA	10차 협상('21.2)	인니-이란 PTA	중간 미팅('19.4)
인니-터키 CEPA	중간 미팅('20.8)	인니-모리셔스 PTA	1차 협상('19.8)
인니-파키스탄 TIGA	2차 협상('21.4)	인니-모로코 PTA	협상 개시('18.6)
인니-방글라데시 PTA	3차 협상('19.10)	인니-캐나다 CEPA	협상 개시('21.6)
인니-튀지니 PTA	중간 미팅('21.3)	인니-UAE CEPA	협상 개시('21.10)

자료 : 인도네시아 무역부

■ (ESG) 대부분의 산업에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전망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법으로 명시한 인도네시아, 친환경·탄소중립 기조 확대
 - 인도네시아는 '07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40호로 기업의 CSR 활동 의무화
 - 조코위 대통령은 '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 중립 의지를 표방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ESG 준수 요구
 -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크피디아(Tokopedia) 대상으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토코피디아 대상 ESG 요청 운동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Kpop4Planet(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 결성) ○ 요청 내용: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국제 기준 준수 - 회사 운영 중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대중에게 공개 ○ 특이사항: 토코피디아의 홍보 모델이 K팝 대표주자인 BTS와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토코피디아를 선택
---	--

자료 : <https://tokopedia4bumi.kpop4planet.com/>

■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ESG 경영 적극 실천

-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는 ESG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Sedari Kang Hari(지속가능하며 독립적인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주방용품 제조기업 유니레버는 '16년부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와 협업해 학교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개보수, 비누 보급 및 손씻기 캠페인 전개(Healthy School & Pesantren 프로그램)하여 1,200만 명의 학생들을 지원
- CJ제일제당은 '22년 9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 인니 공장의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해 탄소 배출 저감 의지 표명
 - * 해당 증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만 발급되는 인증서

■ 자본시장도 ESG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19년 4월 UN 주도 지속가능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가입
- 지속가능한 증권투자를 구현하기 위해 '20년 12월 'ESG Leaders' 지수* 신설(IDXESGL)
 - * ESG 관련 높은 평가를 받은 30개 상장 기업들의 ESG 점수를 지수화
- 이 외에도 금융 당국에서는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시장 분석

ASEAN 최대 성장 잠재력을 한류 친화 시장으로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

-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가졌고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시장
- 하지만 정부의 수입 대체 정책과 다양한 규제가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

가. 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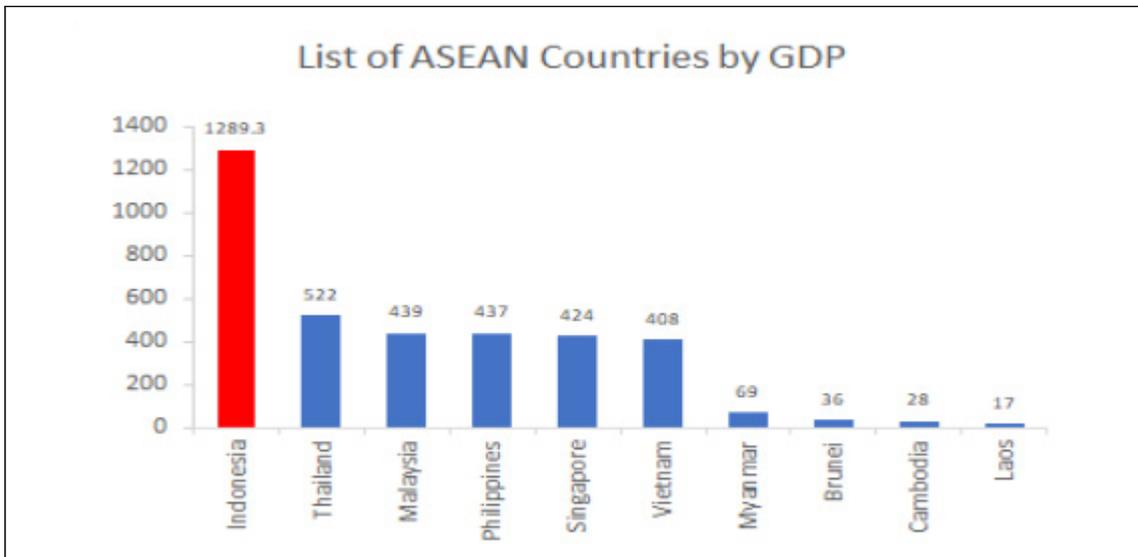
■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 최대 경제 규모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총 2억 7천여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 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0.7%에 육박해 인구 보너스 최고 구간을 지나는 중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명목 GDP는 1조 2,800억 달러 수준으로 ASEAN 국가 중 최대, 전 세계 16위를 기록(한국은 10위)

〈 2021년 아세안 국가 명목 GDP 〉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MF (2021)

-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으로 제조업 성장성 높음
 - 전통적으로 팜오일, 석탄, 금, 주식, 천연고무 등 원자재가 주요 수출품
 -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 요소인 니켈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인도네시아 자원 생산 추이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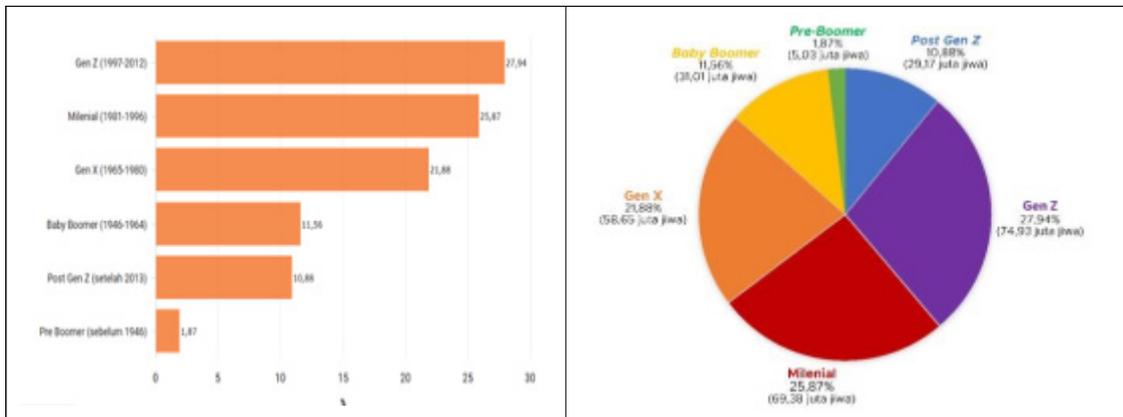
구분	니켈	석탄	금	팜오일	주식	고무	코코아
매장량(톤)	1.74억	348억	2,600	4백만	800,000	-	-
매장량 순위	1	4	6	1	2	2	6
연간 생산량(톤)	2.5백만	6.1억	71	51.3백만	70,000	3.4백만	710,000
연간 수출액(백만 달러)	20,900	26,533	5,542	28,606	2,440	3,894	1,210

주 : 광물자원은 매장량, 농산물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순위 산정
 자료 : idxchannel, BPS, Ministry of Industry, Databoks

■ 모바일(인터넷) 사용률 급속 증가에 따른 비대면 플랫폼 성장

- 생산가능인구 중 과반수가 MZ세대로 구성
 -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Z세대로 인터넷 사용에 능숙

〈 인도네시아 인구 구조 (2020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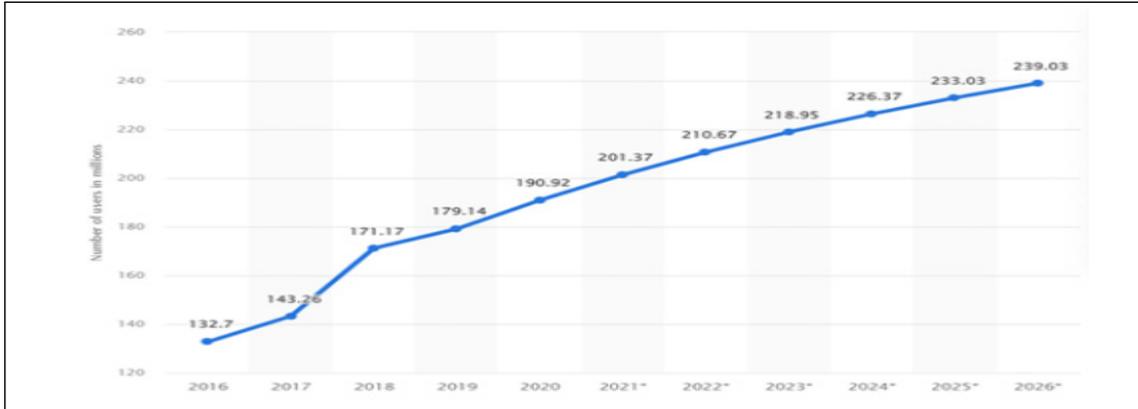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모바일(인터넷) 사용률 급증
 - 인구 중 76.4%가 인터넷 사용, 향후 5년간(2020~2025년) 연 평균 3.2% 성장 전망*

〈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추세 〉

(단위 : 백만 명)



주 : 21년 이후는 Statista 추정치 활용

자료 : Statista(2022)

- 인터넷 접속 방법이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모바일 기기로 변화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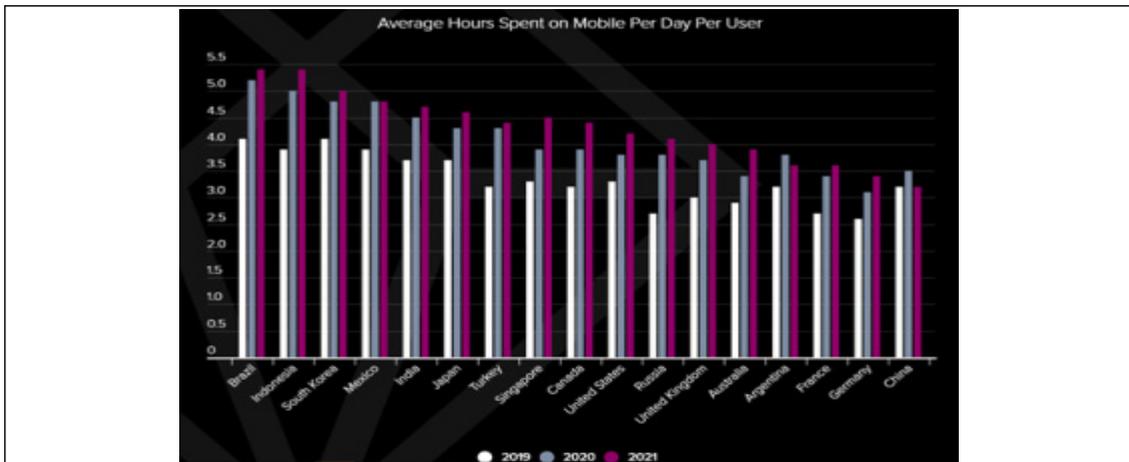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89.03%가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로만 인터넷 접속, 0.73%만이 데스크톱으로만 인터넷 접속한다고 응답 (APJLL 2022)

- 이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들의 높은 성장

- 하루 평균 모바일기기 사용 시간은 5.4시간으로, 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국가

〈 주요국 모바일기기 일 평균 사용 시간 〉

(단위 : 시간)



자료 : data.ai Intelligence

-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은 SNS, 전자상거래 앱 등임

〈 인도네시아인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 현황 (2021년) 〉

Indonesia					
DOWNLOADS		CONSUMER SPEND		MONTHLY ACTIVE USERS	
1	TikTok	1	TikTok	1	WhatsApp Messenger
2	CapCut	2	Tencent Video	2	Facebook
3	Snack Video	3	LINE Webtoon	3	Instagram
4	Facebook	4	Google One	4	Shopee
5	Instagram	5	Viu	5	Telegram
6	DANA	6	GoodNovel	6	Tokopedia
7	Shopee	7	Innovel	7	TikTok
8	WhatsApp Messenger	8	GetContact	8	Gojek
9	PeduliLindungi	9	BIGO LIVE	9	Facebook Messenger
10	Telegram	10	WeSing	10	MyTelkomsel

주 : 월별 활성 사용자 기준, iOS, Google Play 다운로드 및 구매실적 합산
 자료 : data.ai Intelligence

●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

- '21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는 700억 달러로 동남아 최대 규모이며, '20년 대비 약 49% 증가해 필리핀, 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

〈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인터넷 경제(전자상거래 총매출액) 규모 〉

(단위 : 10억 달러(\$B))



자료 : 'e-Conomy SEA 2021', Google, Temasek, Bain&Company

■ 인도네시아 문화 속 깊게 자리 잡은 화인 문화

- 화교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상장 기업 가운데 화교(화인) 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스타트업, 첨단산업, 의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통 분야 등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
- 화인 문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Metro Xinwen', 'Hi Indo IV'와 같이 중국 소식과 문화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존재
 - 중국의 사자춤은 인도네시아 국민 스포츠로 지정되었으며 중국 연휴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의 각종 연휴 이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축하 기념 할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화인문화 주요 현황 〉



자료 : Tokopedia, Metro TV 등

■ 한류 바람이 가장 크게 불고 있는 시장 중 하나

- 코로나19에 따라 다시금 각광받는 K-콘텐츠
 -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인도네시아 넷플릭스(Netflix) TOP 10의 상당수를 한국 작품이 차지하고 있음
 - * 1위 작은아씨들, 2위 별뿔별, 3위 슈룹, 6위 미생, 7위 신사와 아가씨 등 10위권 내 한국 콘텐츠 7개(22.10.19)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 높은 호감도와 높은 유료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한류문화 주요 콘텐츠 소비 비중 〉

구분	전 체순위	소비 비중
드라마	2	39.2%
예능	3	35.3%
영화	3	37.2%
음악	3	35.1%
웹툰	2	33.6%

자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주 :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18개국 대상 조사

● 단순 흥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산

-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에 한류마을을 조성해 운영
- 현지 프랜차이즈 기업이 BTS와 협업한 제품은 단기에 판매 매진
-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조형물과 복장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음



자료 : 연합뉴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실제 촬영

●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류

- 한국 아티스트(BTS, NCT 등)를 자사 홍보 모델로 내세운 현지 기업들이 증가
-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 패션 등을 주제로 한 K-FEST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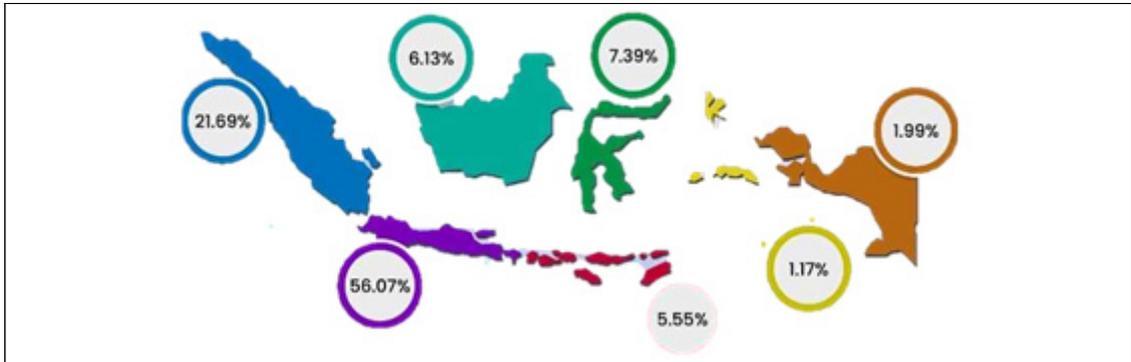
자료 : <https://www.rukita.co/stories/idol-kpop-brand-ambassador-produk-lokal/>

■ 지역별 편차가 크고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 타깃 맞춤형 마케팅 필요

● 자바(Jawa)섬 중심의 상권

-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큰 섬 중 자바섬(제 1·2의 도시인 자카르타, 수라바야 위치)에 인구의 56.07%인 약 1억 5천만 명이 거주

〈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구 분포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2021.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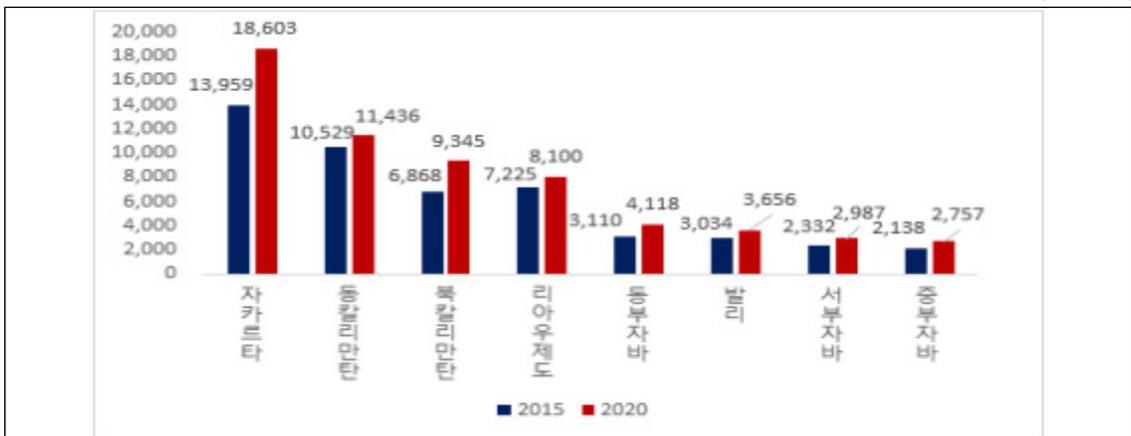
- 자바섬의 '21년 GDP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57.89%를 차지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뤄짐
- * 수마트라(21.7%), 칼리만탄(8.26%), 수라웨시(6.9%) 등 차지, 인도네시아 통계청(2021)

● 소득계층의 양극화

- 인도네시아 실질적 중산층의 규모는 8천만 명 내외 수준이며(population of middle class/indonesia),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은 중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인 자바섬 내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지역별로 1인당 구매력 차이가 큰 편

〈 2016년(좌) 및 2021년(우) 주별 1인당 GDP 수준 〉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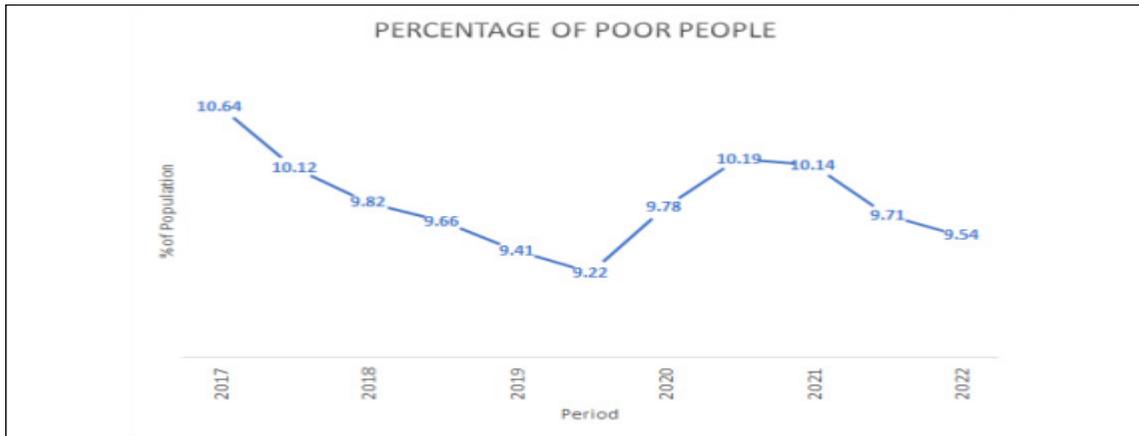
주 : 통계청 자료는 루피아로 표기되어 1달러=14,500루피아 일괄 적용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높지 않은 1인당 GDP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 확대**

- 인도네시아 1인당 GDP는 약 4,600만 달러로 베트남과 비슷하며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22년 기준, 말레이시아(\$13,110), 태국(\$7,630), 베트남(\$4,160), 필리핀(\$3,600) (자료: IMF)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 빈곤층이 증가해왔으며, 최근 다소 둔화 추세이나 여전히 9%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빈곤율 추이 〉

(단위 : %)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재구성

■ **역동적으로 발전 중인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 **아세안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주요 활동무대**

- 인도네시아에는 9개의 유니콘과 2개의 데카콘이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
 * CB insights 2022.8
- 정부는 '23년까지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니콘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
- 인도네시아 최초 데카콘 기업인 Goto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핀테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

〈 인도네시아 데카콘,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 ('22.8) 〉

기업명	주요 분야	주요 투자자
고투(GoTo)	라이드헤일링, 물류, 핀테크	Telkomsel, Paypal, Facebook, Visa, AIA Group, Astra International 등
제이엔티익스프레스 (J&T Express)	물류, 교통	Hillhouse Capital, Boy Capital, Sequoia Capital 등
부칼라팍(Bukalapak)	전자상거래	500 Startups, Batavia Incubator, Emtek Group 등

기업명	주요 분야	주요 투자자
트레블로카(Traveloka)	여행	Global Founders Capital, East Ventures, Expedia 등
오보(Ovo)	핀테크	Grab, Tokopedia, Tokyo Century Corporation 등
아쿠라쿠(Akulaku)	핀테크	Lend East, Siam Commercial Bank (SCB) Group 등
다나(Dana)	핀테크	Sinar Mas, Lazada 등
젠딧(Xendit)	핀테크	Accel, Y Combinator, Amasia
아자입(Ajaib)	핀테크	Softbank, Horizon Ventures 등
(코피 꼬낭안) Kopi Kenangan	커피 체인점	Alpha Wave Global, Horizon Ventures, Falcon Edge India, KUNLUN, Sequoia Capital India 등
(티켓닷컴) Tiket.com	여행 관광	Djarum group.

자료 : CB Insights, Kompas, The Jakarta Post, 각 회사 자료

- 수도 자카르타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620억 달러 규모로 스타트업 10대 도시 중 디트로이트, 팔라룸푸르, 홍콩의 뒤를 이은 4위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 입증*

*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환경 분석 〉

주요 장점 및 발전 원동력	주요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경제 규모 현지 투자 해외 자본 건별 평균 투자 액수 고투(GoTo)와 같은 초대형 스타트업의 출현 및 관련 산업 생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음 현지 인력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낮은 등 '사업 복잡성 (Business Complexity)'이 큼 인터넷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고급 인력 부족 대중교통의 부재로 낙후된 교통 및 물류 시스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

자료 :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 동향, 콘텐츠진흥원(2021년 1호)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 고려 요소, 할랄 산업 성장

● 전 세계 최대 할랄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지수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4위를 기록함

*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2

- '20년 금융 분야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할랄 소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5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해 약 3,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 (2020) 〉

(단위 : 10억 달러)

국가	분야	규모	연평균 성장률 전망 (2020~2025)
인도네시아	식·음료	135.0	14.7%
	패션	15.6	8.3%
	제약	5.13	5.8%
	화장품	4.19	12.6%
	미디어	20.7	9.0%
	관광	3.4	19.0%
	이슬람 금융 (자산 기준)	120,0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Indonesia Halal Report 2021~2022)

- '21년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종교부 산하 인증 총괄 할랄보장청(BPJPH) 신설
 - 민간기구인 이슬람단체 울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던 할랄 업무를 정부기관인 BPJPH로 이관되고 MUI는 검사와 심의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

〈 할랄보장청(BPJPH) 기관 개요 〉

국가	기관명	내용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할랄 접수부터 인증서 교부까지 전 과정 관여 ▶ 할랄 여부 검토는 MUI에서 진행

자료 : 할랄 제품 보증 시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2021년 39호, BPJPH 홈페이지 등

- 이는 정부가 할랄 인증 전반에 대해 관리 및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22년 2월에는 새로운 할랄 라벨, 할랄 시스템 고도화 등에 대한 할랄보장청 규정 2022년 제40호 발표
 - 이번 법령을 통해 새롭게 고안된 할랄 로고는 22년 3월 1일부터 발급되는 할랄 인증에 사용
 - * 기존 로고는 '26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에 도래하기 전 교체 필요

〈 인도네시아 신규 할랄 인증 로고 〉


➔


Masih dapat berlaku selama 5 tahun sejak diundangkan perka no. 39 th 2021 tanggal 2 februari 2021

2021년 39호 규정에서 MUI 할랄 로고의 기존 사용자는 2026년 2월까지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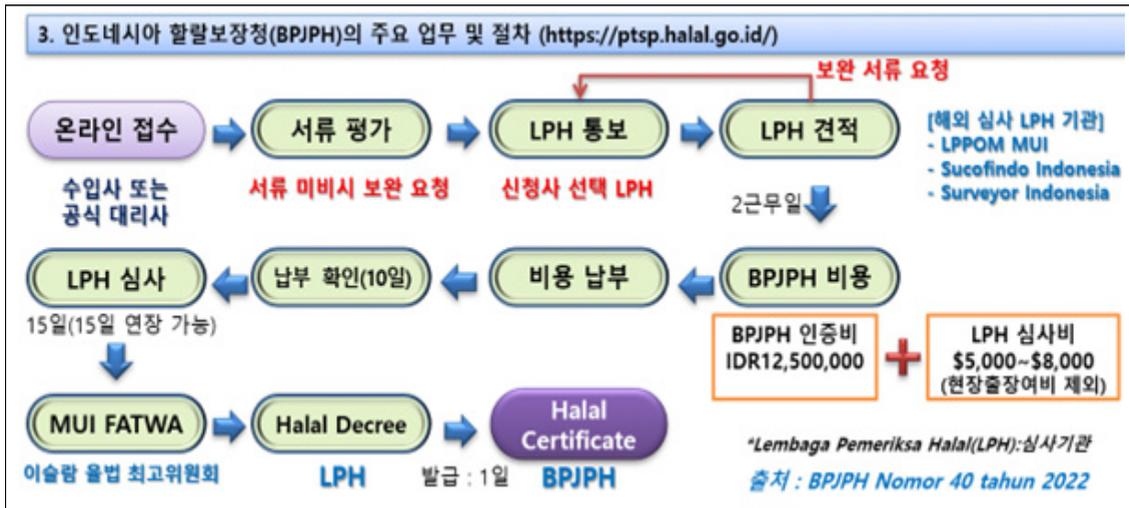
Penggunaan Logo halal baru mengacu pada keputusan Kepala BPJPH No. 40 Tahun 2022 ditetapkan tanggal 10 februari 2022

BPJPH 규정 2022년 40호 할랄 로고 소개
2022년 3월 1일부터 신 로고 사용 적용

자료 : PT. Green Nature Farm, BPJPH Nomor 40 Tahun 2022

- 할랄보장장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증 비용도 이번 법령을 통해 명문화되며, 일반적으로 1,250만 루피아(약 110만 원)의 비용을 할랄보장장에 납부 필요
- * 해당 비용은 할랄보장장의 인증서 발급 비용만을 의미하며, 할랄 심사기관의 (인력 출장여비를 제외한) 심사비 항목으로 5천~8천 달러 상당의 비용이 추가(PT. Green Nature Farm)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프로세스 정비 내용 〉



자료 : PT. Green Nature Farm, BPJPH Nomor 40 Tahun 2022

-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Halal)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인니 진출에 있어 중요
- 무슬림에 있어 금기시(하람, Haram)되는 돼지 원료가 포함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돼지 원료가 포함 표시가 필수 부착

〈 돼지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식품 표기 방법 〉



자료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PT. Green Nature Farm

■ 2022년 주목받은 소비 트렌드, 할랄 제품

- 글로벌 할랄 시장의 플레이메이커로 등극한 인도네시아
 -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이 되는가를 의미, 식품·화장품·의약품뿐만 아니라 패션제품 및 금융·서비스 등에도 적용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할랄 시장, 2억 2,960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연간 1,840억 달러 규모의 할랄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함
 - OIC는 인도네시아 내수 할랄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 2년간 주요 글로벌 할랄 관련 M&A, VC, PE 71건 중 20건이 인도네시아 발생 (OIC 국가 중 2위)
 - * 이슬람 협력기구(OIC) : 세계 57개국 이슬람 국가가 결성한 국제 협력체
- 국가 주도의 할랄산업 육성 정책, 식음료·화장품·의약품에 할랄/비할랄 여부 표기
 - '20년,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이슬람단체 MUI는 인도네시아 할랄경제의 7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식품, 패션, 의약, 화장품, 미디어, 관광, 금융을 선정
 - '24년부터 모든 식음료 상품, '26년부터는 화장품,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 표기, 할랄 제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할랄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한 성공 사례, 할랄 인증에 대한 소비 민감도 확인
 - (화장품) 현지 할랄 화장품으로 유명한 'Wardah'는 자연친화적이며 동물성 성분(태반, 콜라겐, AHA 등)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 '21년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쇼피, 토코페디아)의 화장품 시장점유율 2위 차지
 - (의약품) 대웅인피온(대웅제약 인도네시아 법인), 빈혈 치료제 에포디온(EPO)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후발 주자이나, 유사 제품 중 유일하게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 '22년 기준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60%로 1위
 - (식품) 삼양 불닭볶음면은 '17년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해 할랄 인증 취득, 타 수입 라면과 차별성 확보

〈 對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인증 취득 수출품 〉

제품	기업명	현황
 <p>요보끼</p>	영풍(제조/한국) PT. Indoguna Utama(수입유통/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MUI 최고 등급은 A등급 취득, 인도네시아 성공적인 수출 ▶매운맛, 짜장맛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 공략 ▶온/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쉽게 구입 가능
밀코사이드76(천연 계면활성제) -바디워시, 샴푸, 주방세제 원료	LG생활건강(제조/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MUI 할랄 인증 취득, 인증 효과로 전년 대비 매출액 12% 증가한 388억 원 기록 ▶밀코사이드 원료를 동남아 전역에 B2B 직판하는 형태로 판매, 동남아 할랄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주고객

자료 : Tokopedia(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BPOM(인도네시아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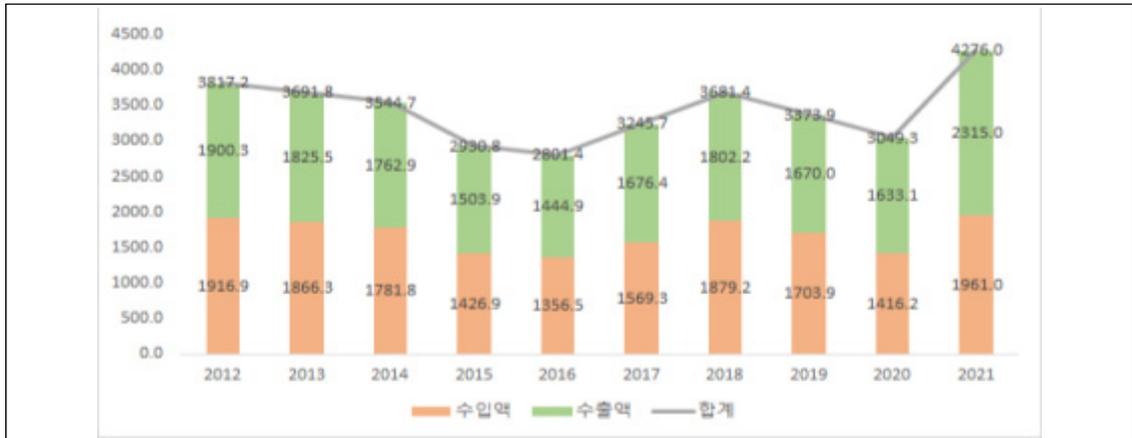
나. 교역

■ 인도네시아 수출입 개황

- '10~'20년 기간 동안 M자형 추세를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외 교역이 '21년 큰 폭으로 증가함

〈 인도네시아 교역액 추이 〉

(단위 : 억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교역액 변동

- '15~'16년 주요 교역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유가,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교역액 감소
- '18년 이후 미·중 갈등과 각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감소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내수 침체를 겪으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적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현지 내수 회복에 따른 교역액 증가

- '21년에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함
- 글로벌 경기 회복 대비 내수 회복이 느린 추세가 이어지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2년 상반기 기준 24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수출액	180,215	167,003	163,308	231,522	141,126
수입액	187,917	170,388	141,622	196,190	116,183
무역수지	-7,702	-3,385	21,686	35,332	24,943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 '22년 6월 누적 기준, 중·미·일 수출액은 555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9% 차지
- 동 기간 한국으로 수출은 약 61억 달러로 7위를 기록, 수출 비중은 약 4.3%를 차지

〈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국 수출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전체 수출액		180,215	167,003	163,308	231,522	141,126
1	중국	27,127	27,877	31,776	53,782	28,939
2	미국	18,427	17,647	18,621	25,774	14,763
3	일본	19,480	15,928	13,663	17,855	11,835
4	인도	13,726	11,774	10,414	13,289	11,453
5	싱가포르	12,992	12,929	10,712	11,634	7,871
6	말레이시아	9,437	8,942	8,131	12,006	7,826
7	한국	9,533	7,210	6,507	8,980	6,122
8	필리핀	6,825	6,758	5,899	8,604	5,868
9	태국	6,819	6,213	5,113	7,090	4,288
10	대만	4,701	4,016	4,099	6,961	4,180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 '22년 6월 누적 기준, 중·싱·일 수입액은 50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3.5% 차지
- 동 기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약 58억 달러로 6위를 기록, 수입 비중은 5%임

〈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국 수입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상
전체 수입액		187,917	170,388	141,622	196,190	116,183
1	중국	45,349	44,895	39,635	56,227	32,284
2	싱가포르	21,385	17,096	12,341	15,452	9,841
3	일본	17,878	15,609	10,672	14,644	8,409
4	말레이시아	8,563	7,725	6,933	9,451	5,994
5	태국	10,878	9,462	6,484	9,146	5,885
6	한국	9,042	8,416	6,849	9,427	5,836
7	미국	10,148	9,249	8,580	11,249	5,578
8	인도	5,003	4,295	3,764	7,668	5,217
9	호주	5,819	5,515	4,647	9,425	4,405
10	사우디아라비아	4,909	3,568	2,613	3,967	2,819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품목별 교역 동향

● 원자재 · 중간재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 '22년 6월 기준, 석탄, 팜오일, 합금철, 구리광, 천연가스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상위품목이 거의 유사함
- '21년 들어 전 세계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주요 교역품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호조세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 '21년 8월 누적 기준, 對 중국 석탄 수출은 47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50% 증가
- 현지 기업 및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주로 철강제품, 전자기기(TV, 음향기기 등), 일반차량, 신발류, 기계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출 품목 수출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
전체 수출액	180,215	167,003	163,308	231,522	141,126
1 석탄(2701)	20,634	18,866	14,548	26,538	21,147
2 팜오일(1511)	16,528	14,633	17,365	26,665	11,494
3 합금철(7202)	1,368	2,604	4,745	7,125	6,621
4 구리광(2603)	4,187	1,280	2,412	5,386	4,598
5 천연가스(2711)	10,649	8,849	5,452	7,483	4,391
6 평판압연(7219)	2,298	3,259	2,993	6,586	3,737
7 공업용지방산(3823)	2,980	2,549	2,917	5,299	3,552
8 갈탄(2702)	3,329	2,767	1,925	4,975	2,790
9 천연고무(4001)	3,951	3,527	3,012	4,017	2,029
10 승용자동차/차량 (8703)	3,277	3,943	2,689	3,359	2,377

주 : '22.6 HS 코드 4단위 누적 수출액 기준 내림차 순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내수 경기 회복에 따라 석유 및 원유와 식음료, 전자제품, 차량부품 등 다양하게 수입

- '22년 6월 기준, 석유 · 원유(USD 165억), 전화기(USD 32억), 천연가스(USD 27억), 차량 부속품(USD 21억) 등을 주로 수입
-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원자재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과 에너지산업 및 산업 공정과 관련된 보일러 기계류, 농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곡물 종자, 의료산업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CKD)의 수입 수요도 지속 존재

〈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입 품목 수입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6
전체 수입액	187,917	170,388	141,622	196,190	116,183
1 석유(2710)	17,069	13,085	7,968	13,971	11,782
2 원유(2709)	9,161	5,705	3,392	7,047	4,735
3 전화기(8517)	5,795	5,615	5,963	6,281	3,217
4 천연가스(2711)	3,032	2,507	2,581	4,091	2,716
5 차량 부품(8708)	3,765	3,382	1,842	3,128	2,063
6 자동차처리기(8471)	2,346	2,290	2,023	3,056	1,908
7 밀(1001)	2,560	2,799	2,616	3,548	1,907
8 전자회로(8542)	1,926	1,586	1,790	2,871	1,900
9 사탕수수당(1701)	1,791	1,366	1,936	2,382	1,819
10 석탄(2701)	900	1,052	903	2,276	1,779

주 : '22.6 HS 코드 4단위 누적 수입액 기준 내림차 순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 인도네시아 수출입 주요 경쟁사 현황

-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혹은 그룹사의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이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뿐 아니라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도 포함
- 담배, 석탄, 완성자동차(CBU)는 주로 수출에 많이 관여하며 철강 제품, 건설 자재, 석유, 가스, 중장비, 컴퓨터 하드웨어는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품목
- 한편, 내수 생산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원자재, 부품 및 산업기계 등에 대한 수입 및 협업 수요는 지속 존재

〈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 대기업 〉

분야	대표 기업
담배	Gudang Garam (Tobacco), Djarum, HM Sampoerna
건설 자재	Semen Indonesia
정보통신 서비스	Telekom Indonesia
제조업(자동차)	Astra International
석탄	Bumi Resources, Bayan Resources
컴퓨터 하드웨어	Dragon Computer & Communication
철강 제품	Krakatau Steel, Krakatau Posco
석유, 가스	Pertamina, MedcoEnergi
의약품, 화학	Kalbe Farma, Sanbe Farma, Kimia Farma, Indofarma Sidomuncul, Chandra Asri, Barito Pacific
기계, 중장비	Ateliers Mecaniques D'Indonesia, United Tractors

자료 : 무역관 자체 정리(2022)

■ 교역 주요 애로사항인 주요 비관세장벽 및 수입 규제

- 인니 정부의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 대체 기조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수입 규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국산 부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 건설업 국산 부품 사용 독려('21.3)
- 무역구제 조치 동향('22년 6월 기준)
 -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입 규제는 총 19건(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9건)
 - 주로 섬유·의류(6건), 철강·금속(4건)과 플라스틱·고무(3건) 등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 중인 산업 보호에 대한 조치 (지난해에 비해 대목 감소했는데, 작년도 작성내역이 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만기된 건들은 모두 미포함)

〈 인도네시아 무역 구제 조치 현황 ('22.6) 〉

품목	규제 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섬유/의류		2	1	4	2	6	3
철강/금속		4	2	0	1	4	3
플라스틱/고무		2	1	1	0	3	1
화학		1	0	0	0	1	0
기계		0	0	0	0	0	0
기타		1	1	4	1	5	2
총계		10	5	9	4	19	9

자료 : WTO 통계, 인니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인허가
 -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비관세장벽
 - 해외 인증 준비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수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전 대비 필요

〈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세부내용 〉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격	의무	의무	의무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신청 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 유형별 유통허가(PSB)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을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획득 소요기간	2개월~1년	2개월~2년	2개월~1년
획득 소요비용 (제품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0~5,000	USD 1,000~5,000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타국 인증 상호 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주 : 대행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 인도네시아 보건부, 식약청, 국가표준기구 등

● '24년부터 표기 여부가 의무화되는 할랄(Halal) 인증

- '19.10월부 新 할랄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기 여부가 의무화되었지만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BPJPH)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준비를 위해 '24년까지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유예
- '21년 정부 규정(PP No. 39, 2021)을 통해 할랄인증제도 담당 기관별 혼선이 해소되었고 표기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아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

〈 할랄 인증 세부정보 〉

인증명	할랄(Halal) 인증
인증마크	  <p>[기존 로고(좌), 신규 로고(우)('22.3.1부터 사용)]</p>

인증명	할랄(Halal) 인증	
인증기관	Badan Penyelenggara Jsinan Produk Halal (BPJPH,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 (할랄 여부 표기)	
주요 적용 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 전반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신청 주체	제품 제조사 (생산설비가 인증 대상)	
할랄 심사기관	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프로세스	<p>1. BPJPH를 통해 할랄 신청(http://halal.go.id/) 2. BPJPH에서 신청 접수 후 할랄 인증 심사 기관(LPH) 선택 3. LPH에서 할랄 신청 기업 실사 * 실사는 사업장에서 대면이 원칙, 특이사항(코로나 19) 발생 시 온라인 4. LPH에서 검사 결과를 BPJPH에게 송부 5. BPJPH에서 울라마 위원회(MUI)에 할랄 여부 검토 요청 6. MUI에서 파트와 할랄(할랄 적격성) 검토 결과를 BPJPH에게 전달 7. BPJPH에서 할랄 인증서 교부</p> <p>BPJPH(할랄보장청)에 접수 신청 LPH(심사 기관)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 MUI FATWA(이슬람법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인증서를 발급</p> <p>식품, 화장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급별 차등 적용, 의무 적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의류-헤드기어(2026년부터), 생활용품(2026년부터) 등 또한 할랄성을 인증 받게 됨</p> <p>식품과 음료 할랄 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p>	
획득 소요기간	21~41일 (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획득 소요비용* (제품당)	USD 10,000~20,000 (현재 기존 MUI에서 책정한 인증 비용 적용 중, 향후 재무부 법령을 통해 개정 비용 공고 예정)	
유효기간	4년(기존 MUI 할랄 확인서-Hala Decree 유효기간은 4년, 2년단위 검사)	
타국 인증 상호 인정 여부	인정 추진 중 (BPJPH에서 상호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는 것으로 협의 중)	

주 : 대형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 PT. Green Nature Farm(무역관 인증 자문), Peraturan Pemerintah(PP) Nomor 39, Tahun 2021

- 2022년 대통령령 제32호 National Commodity Balance System이 제정됨에 따라 수출입 관련 승인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정확한 수출입 데이터의 제공과 수출입 분야 라이선싱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도입
 - 수출입 승인을 보장하고, 국가 주도 상품(national-scale commodities)의 생산 및 국가 산업발전 관련 프로젝트의 생산·소비량 패턴 정보 취득이 목적
 - * Hukumonline / Improving Business Certainty : Goct.Issues Provisions on Commodity Balances
 - FTA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자의 자격 및 수입화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수입 허가요건 강화 [인터뷰: PT. SPL Logistics, PT. FCL Logistics]

- 코로나19 이후 화물 전수검사(Redline) 검수 증가
- FTA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선납법인세 인상
- * 기존 2.5~7.5% → 변경 7.5~12.5%로 FTA 관세 면제 효과 상쇄

- (공급망)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포함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
 - 자바(석탄, 니켈, 다이아몬드), 수마트라(주석, 보크사이트, 석탄 등), 술라웨시(니켈), 파푸아(동) 등 인니 전역에 분포
 - 특히 니켈과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

〈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21년) 〉

광종	단위	인도네시아(A)	세계(B)	A/B(%)	세계 순위
니켈	톤	21,000,000	95,000,000	22.1	1
주석	톤	800,000	4,900,000	16.3	2
금	톤	2,600	54,000	4.8	5
보크사이트	천톤	1,800,000	39,000,000	4.6	6

자료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2

-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물산업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년 광물산업은 주춤했으나 '21년 들어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을 비롯한 각종 광물산업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세부 성장 현황 〉

구분	항목	2019	2020	2021	2022.Q2
전체 GDP 비중	광물산업 전체	7.26	6.44	8.98	13.06
	석탄	2.33	1.83	3.55	7.45
	철강, 원광	0.61	0.85	1.21	1.38
	기타 채굴	1.54	1.60	1.50	1.26

구분	항목	2019	2020	2021	2022.Q2
연간 성장률	광물산업 전체	1.22	-1.95	4.00	3.91
	석탄	10.20	-5.43	6.60	3.96
	철강, 원광	-15.15	20.26	22.84	23.96
	기타 채굴	6.18	-1.22	1.97	2.94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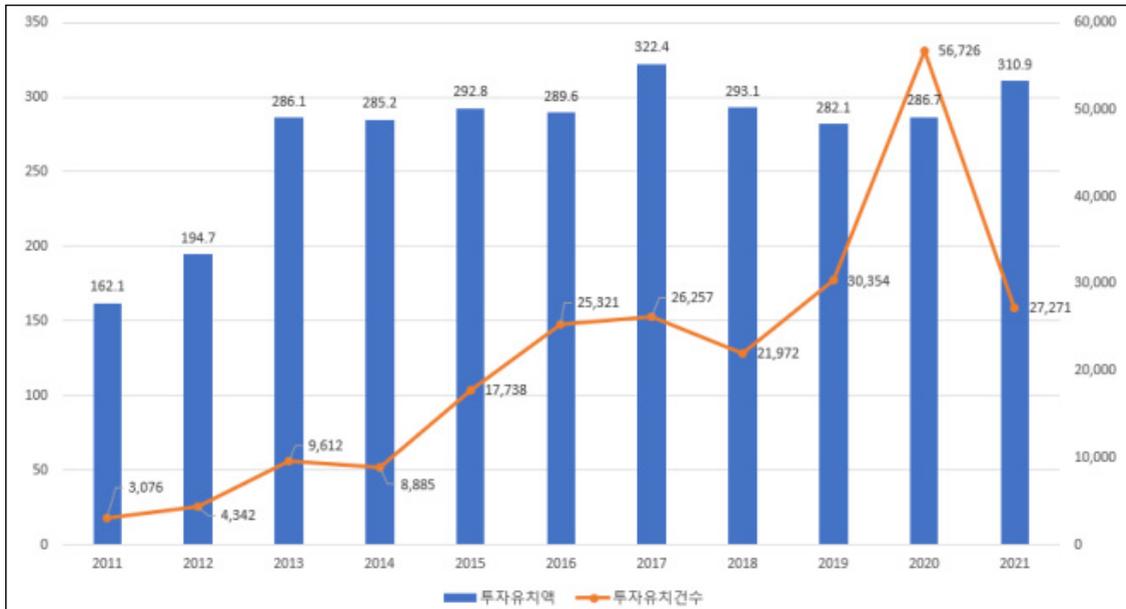
■ 외국인 투자 개황

■ M자형 교역 추이와는 달리 '11년 이래 투자 유치 증가세를 기록 중

- 투자 유치액은 '10~'20년 연평균 6%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전년 투자 유치액은 '20년 대비 증가
- 투자 유치 건수는 '20년 대비 52% 감소, 이는 대규모 투자가 증가함을 뜻함

〈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추이 (투자액, 건수) 〉

(단위 : 억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임
 - '22년 6월 기준, 싱가포르가 67억 달러 규모로 인니 최대 투자 유치국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36억 달러)과 홍콩(29억 달러)으로부터 투자 유입
 - 한국은 9억 달러 규모로 7위, 전체 투자의 5% 수준

〈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주요 국가 투자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19		2020		2021		2022.6
1	싱가포르	6,509.6	싱가포르	9,779.1	싱가포르	9,390.1	싱가포르	6,716.7
2	일본	4,310.9	중국	4,842.4	홍콩	4,609.3	중국	3,625.6
3	중국	4,744.5	홍콩	3,535.9	중국	3,160.4	홍콩	2,890.2
4	홍콩	2,891.0	일본	2,588.0	미국	2,537.2	일본	1,745.1
5	네덜란드	2,596.8	한국	1,841.9	일본	2,263.2	미국	1,402.9
6	말레이시아	1,357.5	네덜란드	1,422.4	네덜란드	1,761.6	말레이시아	1,317.3
7	한국	1,070.2	말레이시아	1,045.3	한국	1,640.2	한국	896.7
8	미국	989.3	미국	749.7	말레이시아	1,364.3	네덜란드	664.1
9	버진아일랜드	743.8	대만	454.3	버뮤다	674.4	영국	383.1
10	영국	142.1	호주	348.6	스위스	599.8	버뮤다	362.8
-	총합	28,209	총합	28,666	총합	28,000.5	총합	20,004.5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지역 및 산업별 투자 동향

- 자바섬 위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추세
 -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가 있는 자바섬에 약 76억 달러 투자가 진행되어 전체 투자액의 40.7% 기록
 - '20년부터 말루쿠, 술라웨시, 리아우 등 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발생

〈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주요 지역 투자액/투자건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1		2022.6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서부자바	서부자바	5,217.7	5,244	중부술라웨시	3,496.8	214
2	자카르타	자카르타	3,330.6	7,620	서부자바	2,996.8	5,310
3	북부말루쿠	북부말루쿠	2,819.9	78	자카르타	2,096.5	6,018
4	중부술라웨시	중부술라웨시	2,718.1	169	북부말루쿠	2,035.0	133

연도	2021			2022.6			
	구분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5		반튼	2,190.0	1,939	서부술라웨시	1,855.3	20
6		리아우제도	1,921.4	331	리아우제도	1,595.1	354
7		동부자바	1,849.2	1,815	동부자바	1,360.4	1,758
8		남동술라웨시	1,616.5	145	반튼	1,353.3	1,762
9		파푸아	1,489.1	95	중부자바	1,136.1	1,236
10		중부자바	1,465.9	1,293	북부수마트라	706.3	321
-		총합	24,618.4	18,729	총합	18,631.6	17,126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제조 및 인프라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서비스 업종 투자 증가
 - 금속 분야에 가장 큰 57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광산, 전기·가스·수도 분야
 - 기타 서비스와 도소매 분야는 타 주요 투자 분야 대비 소액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주요 산업 투자액/투자건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21			2022.6			
	구분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1		금속	6,974.4	781	금속	5,682.7	798
2		광산	3,816.9	486	광산	2,429.3	442
3		교통, 창고, 정보통신	3,159.2	821	전기, 가스, 수도	1,818.8	392
4		전기, 가스, 수도	2,938.6	444	교통, 창고, 정보통신	1,753.5	841
5		식음료	2,337.4	1,606	부동산	1,513.5	1,345
6		부동산	2,186.4	1,323	기타 서비스	934.7	3,696
7		화학, 제약	1,656.5	1,096	농식품, 농장	857.3	958
8		운송기계	1,501.9	846	운동기계	778.0	820
9		기타 서비스	1,189.7	4,537	화학, 제약	661.3	350
10		인쇄	952.5	346	도소매	427.3	5,453
-		총합	26,713.5	12,286	총합	16,856.4	15,095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투자(현지 진출) 애로 요인

● 행정 처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투자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인허가를 쉽게 승인해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정부 소관
-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투자 결정 후에 불확실성이 존재

※ 행정 불확실성 예시 [인터뷰: PT. Doowang Consulting]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 가스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해 K사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지원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출 지연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지분 제한과 현지 기업 필수 협업 지정 업종 존재

- 올해 옴니버스법 시행령(대통령령 10호)에 따라 투자 금지 분야가 20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일부 분야는 아직도 현지 기업과 협업이 필요하거나 지분 취득에 제한
- 중소기업과 협업 업종의 경우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부분 상당수 존재

※ 지분 취득 제한 예시 [인터뷰: 현지 진출 제약사 J사]

-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 철폐
- 하지만 의약품(완제/원료)은 생산 법인 설립만 100% 외국인 투자로 가능하고 유통 인허가는 외국인 지분 취득이 제한되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프린터 잉크(49.4%), 의류(38.9%), 가죽제품(37.2%), 소프트웨어(33.5%), 화장품(12.6%) 등, 인도네시아 국립대 경제학부와 인도네시아 위조상품배척회 공동 연구(20)
- 한국 수출·투자 기업이 상표 무단 선등록 행위를 발견했을 때도 자국민 보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는 사법부 성향에 따라 외국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움
- 이를 방지하고자 KOTRA IP-DESK를 통해 사전 진출 전부터 상표권 등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지식 재산권 현지 동향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IP-DESK]

- 최근 한국 기업 T사 상표가 현지 대리점에 의해 선등록되어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에서는 행정적 정당성만 고려해 대리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진출 시 위조상품·선등록 문제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표명·특허 등록이 필요하며 KOTRA IP-DESK에서는 일부 비용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부분 참고 필요

●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애로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별로 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4.4백만 루피아(약 36만 원) 수준이나 이는 국가 기초교육만을 이수한 인력인 경우이며 대졸 신입사원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HR 전문 기업인 PT. Cahaya Research 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직 급여(근무경력 5년 이상) 임금 인상률은 33% 수준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24%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함(업종별·역량별 차이 존재)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현지 진출하는 경우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현지 인력 채용시장 동향 [인터뷰: PT. Cahaya Research]

-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업종별, 근무 형태별, 경력 등에 따라 상이
- 쉽게 인력 대체가 가능한 단순 서비스·제조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대졸 초임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6백만 루피아(48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 5년 이상 직원의 경우 서비스업은 1천만 루피아(80만 원), 제조업은 9백만 루피아(72만 원) 선으로 보임, 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개인의 역량이 성과로 연결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은 편
- 다만 위의 급여는 대략적인 수준임, 경력직의 경우 실제 업무 역량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한국 인과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채용이 가능
- 가끔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급여 지출을 아끼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사 역량 있는 직원을 낮은 금액에 채용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 빠른 시일 내 이직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더해서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업의 기준은 급여와 법으로 보장한 국민건강보험(BPJS) 외 추가 의료보험(사보험)과 교통비 및 식대와 같은 제반 수당 여부로 해당 부분도 구인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 부분은 PT. Cahaya Research HR 업무 주요 지역인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직 시 참고용으로만 확인 바람
- 실제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인이 경력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여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태도나 적극성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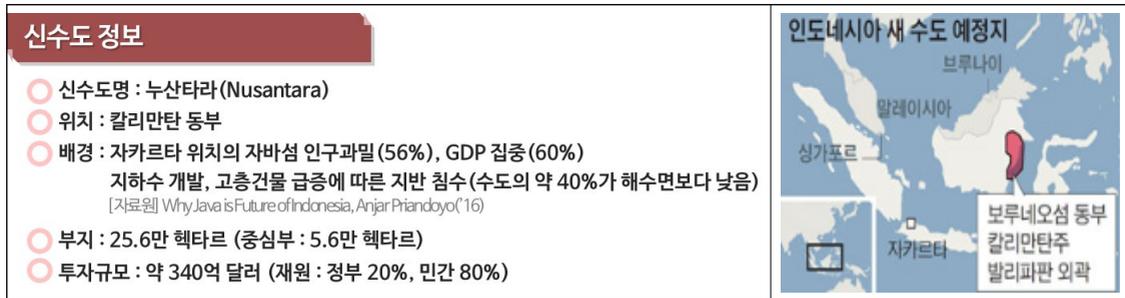
라. 프로젝트

■ 신수도 건설

● 신수도 법제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법률(2022년 제3호)'을 공포
- 신수도 이전은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지반 침수, 교통 체증 등을 타개하기 위해 '19년 8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하며 추진
- 수도 이전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다 '22년 1월 신수도법 국회 통과, 2월 신수도법 공포, 3월 신수도부 신설 등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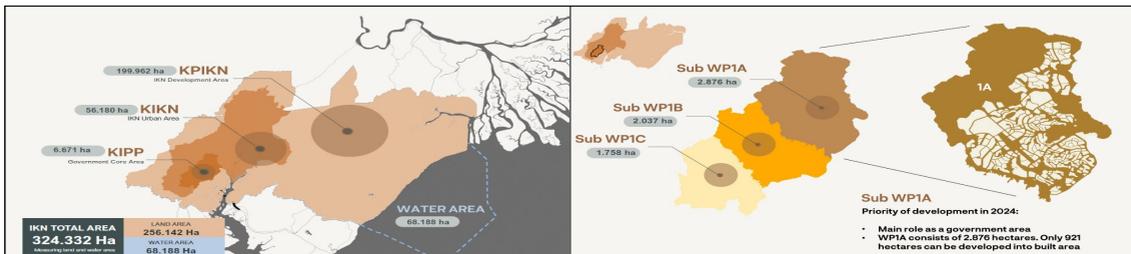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24년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3단계로 개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명칭을 '누산타라(Nusantara, 군도)'로 명명하고, 신수도를 뜻하는 공식 용어를 'IKN(Ibu Kota Negara)'로 정함
- 총 토지면적은 25만 6,142헥타르로, 정부핵심구역(KIPP, 6,671 Ha), 신수도구역(KIKN, 56,180 Ha), 신수도개발구역(KPIKN, 199,962 Ha)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 예정

〈 신수도 부지 개발 계획 〉



자료 : GICC 2022(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인니 신수도부 장관 발표자료 ('22.8)

● 전문학적 소요 예산 확보와 내년 대선 결과가 프로젝트 향방 좌우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수도 건설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466조 루피아(약 340억 달러)로 추정하며 이 중 19.2%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또는 민·관 합작을 통해 조달할 계획

〈 신수도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계획 〉

분야	비율	소요 예산	예산 자원
Basic Service Infrastructures	19.2%	89조 4,700만 루피아	국고
Presidential Residence and Strategic Security Facilities			
Police/Military Official Residence			
Land Clearance			
Green Open Space			
Military Bases	26.2%	122조 900만 루피아	민간 투자
Public Housing			
Education Facilities			
Science Techno Park			
Enhancements on Connectivity Infrastructures (Air, Sea, Land)			
Healthcare Facilities	54.6%	254조 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 투자
Shopping Malls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Government Offices			
Infrastructures Not included in the National Budget			
Education and Healthcare Facilities	54.6%	254조 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 투자
Museum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Other supporting Public Facilities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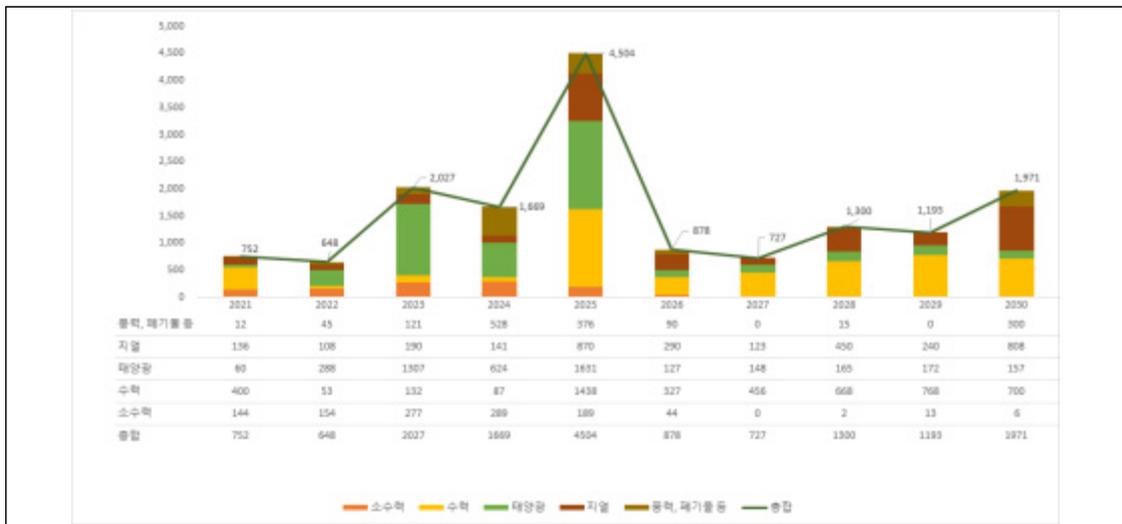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모든 중앙정부 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광복 77년 국정연설에서 신도시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
- 반면,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지지자들 간 수도 이전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9월 17일 논평에서, 더 이상 3선이 불가능한 현 조코위 정부의 매머드 프로젝트 향방은 2024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탄소 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예정

- 10월 발표한 인도네시아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조달 목표가 두 배 가까이 증가
- 하지만 아직까지 석탄과 가스, 디젤 등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 85.6%(62.4GW) 차지('21.4)
-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수력·지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총원 계획 〉



자료 : RUPTL 2021~2030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기자재 조달 관련 다양한 수요 파생 전망

- IPP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지적받던 전력 구매방식과 발전자산 양도 의무 일부 개정(에너지공물자원 부령 2020년 제4호)
-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인 Cirata 저수지 부유식 발전소(145MW) 건설이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중('21.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협력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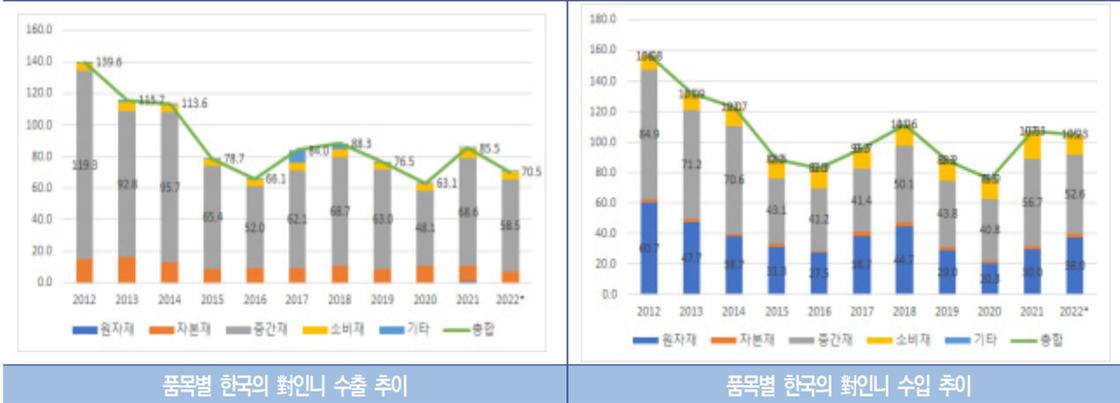
가. 교역

■ 한국과의 수출입 개황

- 인니 총 교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교역액 감소 폭이 더 큰 한-인니 교역 추이
 - '11~'21년간 인도네시아 전체 교역 규모는 연평균 0.4% 증가했으나, 한국과의 교역액은 연평균 4.9% 감소
 - '11년 양국 간 교역액이 308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특히 전반기('11~'15)에 비해 후반기('16~'20)에 교역액 33% 감소
- 교역액 지속 감소 추세 원인은 교역품 변화, 인니 정부 수출입 규제 강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임

〈 한-인니 교역액 추이 (2012~2022) 〉

(단위 : 억 달러)



주 : 2022년은 1~9월 반영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한-인니 교역액은 '18년 수준 회복
 - '22.9 기준 한국과 인니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35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전체 교역액 근접
 - 수출(36% 증가), 수입(33% 증가) 모두 전년 대비 호조 기록

■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 품목 동향

● 수출 상위 10개 품목 동향

- '12년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지만 '22년 55%로 감소
- '22.9 기준,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 등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도체, 정밀화학제품 등이 추가되고 기계류, 섬유화학기계가 제외됨

〈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 품목 변화 〉

(단위 : 천 달러)

순위	2012		2022.9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석유제품	5,514,321	석유제품	1,499,740
2	철강판	1,078,148	철강판	638,485
3	편직물	666,865	합성수지	632,260
4	합성수지	603,297	반도체	426,648
5	합성고무	357,820	편직물	265,694
6	건설광산기계	226,113	합성고무	236,046
7	자동차	200,885	정밀화학원료	206,580
8	섬유및화학기계	192,856	자동차	175,680
9	기타기계류	179,948	기타석유화학제품	154,965
10	무선통신기기	147,893	건설광산기계	153,292
10대 품목 소계		9,168,146	10대 품목 소계	4,389,390
총 수출액		13,955,030	총수출액	7,958,268

주 : 품목 구분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인니 수출액 감소에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 품목 수출액 감소 동향과 주요 원인 〉

품목명	수출액 변동('12→'21)	주요 원인
석유제품	55억 달러(581만 톤) → 7억 달러(99만 톤)	- 한국 석유회사 원유 정제설비 고도화에 따라 저가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선 다변화 추진 - 국제유가 하락,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 프로그램 등도 수출 감소 영향 * 국제유가 '12년 100달러 → '16년 40달러 → '20년 35달러 * '08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 사용 의무로 내년 40%까지 비율이 확대 될 예정(B40)

품목명	수출액 변동('12→'21)	주요 원인
철강판	11억 달러(139만 톤) → 7억 달러(74만 톤)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생산량 확대
기타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니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 '20년 인니 수입액 전년 대비 16.9% 감소 -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산 부품 사용 의무(TKDN) 확대* * '21년 15% → '22년 35% 확대 목표 - 수입물량 쿼터제 확대

주 : 품목 구분은 MIT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의 對인니 수출 물동량 동향

● 수도 자카르타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 위주 물동량 집중

- '22년 8월 기준, 한국산 제품의 對인니 수출 전체 물량은 331만 톤 수준
- 동 기간 자카르타 단종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 단종 페락(Tanjung Perak) 항구에 한국 전체 물동량 54% 집중
- 그 밖에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광물자원과 인프라 개발에 따른 일부 물동량 존재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물동량 추이 〉

(단위 : 천 톤)

순위	2020		2021		2022.8	
	항구명	물동량	항구명	물동량	항구명	물동량
1	Tanjung Priok (자카르타)	1,913	Tanjung Priok (자카르타)	2,164	Tanjung Priok (자카르타)	1,507
2	Tanjung Perak (수라바야)	386	Tanjung Perak (수라바야)	372	Tuban (투반)	301
3	Tuban (투반)	209	Merak (칠레곤)	211	Tanjung Bara (쿠타이)	296
4	Tanjung Bara (쿠타이)	170	Kotabaru (꼬따바루)	209	Tanjung \ Perak (수라바야)	272
5	Merak (칠레곤)	153	Tanjung Bara (쿠타이)	127	Balongan (인드라마유)	200
-	총합	3,842	총합	3,970	총합	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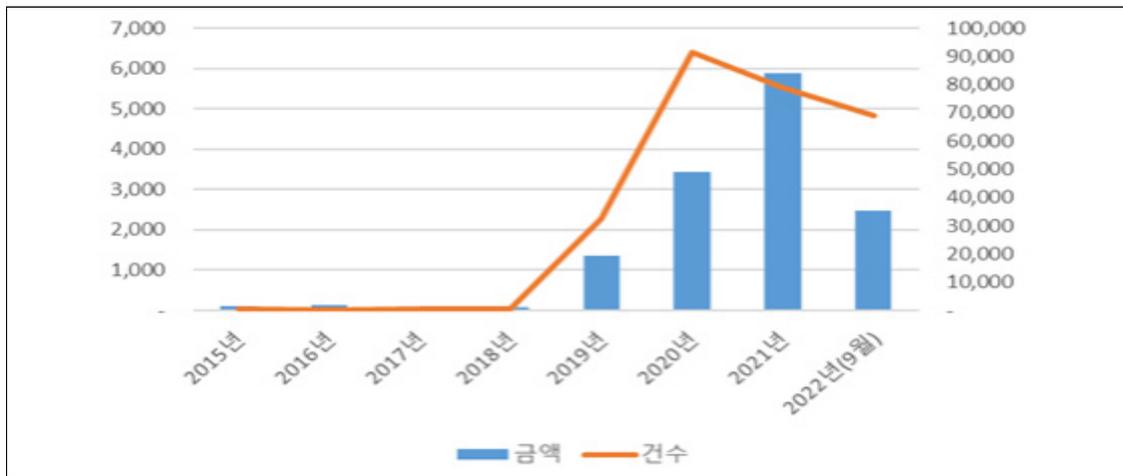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 역직구 활성화에 따라 '1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한국의 對인니 전자상거래 수출
 - '22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4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8% 급감
 -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증했던 전자상거래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2년 말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對인니 전자상거래 수출액 추이 〉

(단위 : 천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TRASS)

- 기초화장품, USB와 같은 전자기억장치, 두발용 제품 등이 주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
 - 기초화장품, 두발용 제품(샴푸 등), 목욕용품 등 뷰티 제품은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되는 제품이며 의류, 안경 등의 수출도 증가 추세
 - 사진, 인쇄 서적 등의 수출량이 높은 가운데 한류 콘텐츠 관련 제품으로 보임

〈 한국의 對인니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액 품목('21.9) 〉

(단위 : 달러)

순위	품목 (HS 4단위)	수출액
1	기초화장용 제품류(3304)	881,308
2	비휘발성 기억장치(8523)	745,352
3	인쇄된 서화 및 사진(4911)	110,708
4	두발용 제품(3305)	46,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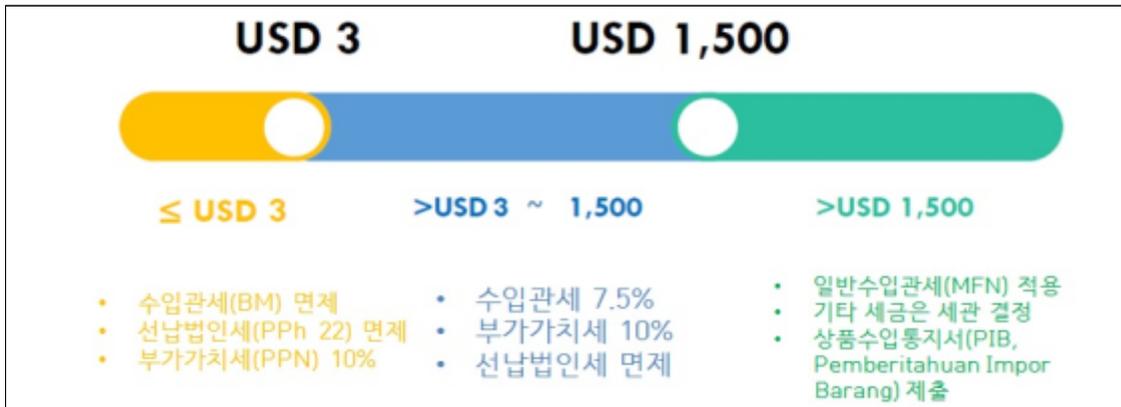
순위	품목 (HS 4단위)	수출액
5	티셔츠 등 의류(6109)	45,646
6	인쇄서적(4901)	45,561
7	안경 및 고글(9004)	33,528
8	플라스틱 제품(3926)	22,609
9	세발자전거(9503)	13,521
10	목욕용품(3307)	11,764
	총합	1,956,359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TRASS)

■ 수출 시 주요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CBT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 시 사전 유의
 - '20.1월부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
 - *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 개정(No.199/PMK.010/2019)
 - 3달러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1,500달러 이상인 경우 BPOM, SNI, ALKES 등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득한 후 정식 통관 필요

〈 탁송화물 금액에 따른 적용 수입 세금 요율 〉



자료 : 인도네시아 관세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최근 Shopee, Lazada 등 역직구 플랫폼 내 판매하는 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인증 여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Shopee, 현지 리셀러 인터뷰 실시 결과

- 현지 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 BPOM, SNI, ALEKS 등 인증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에서만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 보다 신속한 인허가 취득을 위해 사전에 서류 구비 필요
- 현지 수입통관제도 이해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제도는 선 통관 후 검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선적 전 검사를 시행
 - 세관에서 통관되었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추후 수입가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전 유의 필요

※ 현지 인증 서류 주요 애로사항 [인터뷰: PT. SPL Logistics]

- 2007년 7월 1일부 자카르타 항만세관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수입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
- 수입화물 검사 시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가액을 유사제품 가격 조회, 시장판매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어 통관 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함
- 검사 시 수입실적을 인정받는 자료로는 Sales Contract, Purchase Order, Remittance Slip, Email 교신, 수입대금 송금내역 등이 있으며 완벽하게 구비 시 크게 문제는 없음

■ 한 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예상되는 혜택

- '22년 8월, 체결 1년 8개월 만에 인니 의회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 한국은 수입 품목(95.5%), 수입액(97.3%)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93%), 수입액(97%) 관세 철폐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개방 내역 〉

한국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냉연·도금·열연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특히, 사용자 특별면세제도(USDFS)와 유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자동차, 철강 분야 우리 기업들의 혜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3~5%, 즉철), 병커씨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높은 수준의 규범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는 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한-아세안 FTA와 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비교 〉

품목	개선내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섬유, 의류	단순화	업계 활용 불편한 특수기준 규정 (원사기준, 공정기준, 결합기준)	특수기준 삭제
기계, 전자	기준 완화	역외산 부분품 사용 난해 (세번 변경기준, 역내 부가가치율 40% 이상)	역외산 부분품 사용 용이
자동차부품	선택 기준 확대	일부 품목은 단일기준 활용 (세번 변경기준 없이 역내 부가가치율만 적용)	모두 선택기준으로 변경 (세번 변경 or 역내 부가가치율)
철강	기준 완화	일부 스테인레스 품목은 냉연 공정 시에도 원산지 불인정	냉연 공정 시 스테인레스 품목 원산지 인정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한국 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287억 원 규모의 환경 플랜트 수출 성사
 - D사 '22년 6월, 인도네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반타르그방(Bantar Gebang)에서 하루 2천 톤의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7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RDF)를 생산하는 설비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수주
 -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2,100만 달러(한화 약 287억 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설비'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 D사는 '97년 창업 이후 26년간 친환경 분야에만 집중해온 환경설비 전문 강소기업
 - '17년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로 시작하여 '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직접 파일럿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 각인
 - KOTRA를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파트너 물색,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5년 만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KOTRA 주요 지원 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22.2) 현지 파트너 발굴 등 인니 정부 프로젝트 수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현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현재 잠재 파트너 발굴 지원 * ('19~'22) Bantar Gebang 매립지 프로젝트 관련 • 현지 법인 운영, 기술 이전 및 현지 규제 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프로젝트 진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산부 품 사용 요건(TKDN) • 관련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핵심인사와 미팅 주선 ('21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2월) 최종 프로젝트 수주 	 <p>컨소시엄 MoU 체결식 ('19.7월)</p>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매스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에너지를 찾아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해 지속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중

- (성공 사례) 우리 밸브 기업,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시장에 이어 인니 시장 진출 성공
 - B사, 현재 주력 수출국가인 미주, 중국, 대만의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매출액 컨템 점프를 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신규 집중 타깃으로 설정, 현재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
 - B사는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 관련 산업(오일&가스, 석유화학 등) 규모가 큰 인니 시장을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타깃 국가로 설정

→ (진입여건) 인도네시아는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밸브 및 피팅류의 시장성이 큼
 → (진입전략) 소수의 과점 경쟁사들과 견줄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활용, 소수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처 대체 수요 포착

- 신규 공급자 검토에 보수적인 업계 특성 및 B사 제품이 특허기술인 만큼 제품 시연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시회 또는 출장 등이 적합하나 B사는 코로나 상태로 인도네시아 신규 거래처 발굴에 답보 상태였으나, KOTRA 지사화사업의 현지 전담직원을 통해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밀착 지원 추진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B사의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계 1, 2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바이어를 타깃으로 지속적인 대체 수요 발굴, BMT의 제품 시연이 필수적인 만큼 화상상담을 통해 제품 시연 및 화상상담 후 적시 무역관 보유 샘플 송부를 통해 실제 성과 창출
 - 바이어 P사는 석유플랜트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어로, 그간 밸브 및 피팅은 업계 1위인 경쟁사 제품만 사용해왔으나, B사와 화상상담상의 제품 시연을 통해 기술적 장점 확인 및 국내 기업 신뢰 형성
 - 화상 상담 직후,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미 보내진 샘플을 바이어에 적시에 송부하여 바이어 화상상담 직후에 실제로 샘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자카르타 무역관의 실제 바이어의 샘플 확인, 가격 협상 지원 등을 통해 최종 구매계약 체결
- (실패 사례) 민감 품목(주류)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 세번 분류로 통관 지연
 - 수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업체 측에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문의
 - 이전까지 동일 제품으로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해주지 않음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측 물량 조달 문제 발생
 - 통관 거부 사유는 소비세 부분의 문제로, 무슬림 인구가 87%로 주류 수입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주류의 경우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이외에 국내소비세(CUKAI) 납부 필요
 - 시기에 맞게 유통을 진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며 납품 실패

나. 투자

■ 한국의 對인니 투자 개황

- 한국의 해외 자원 1호 투자처로 시작해 약 2,000개 사가 현지 진출 중

〈 우리 기업의 단계별 對인니 투자 진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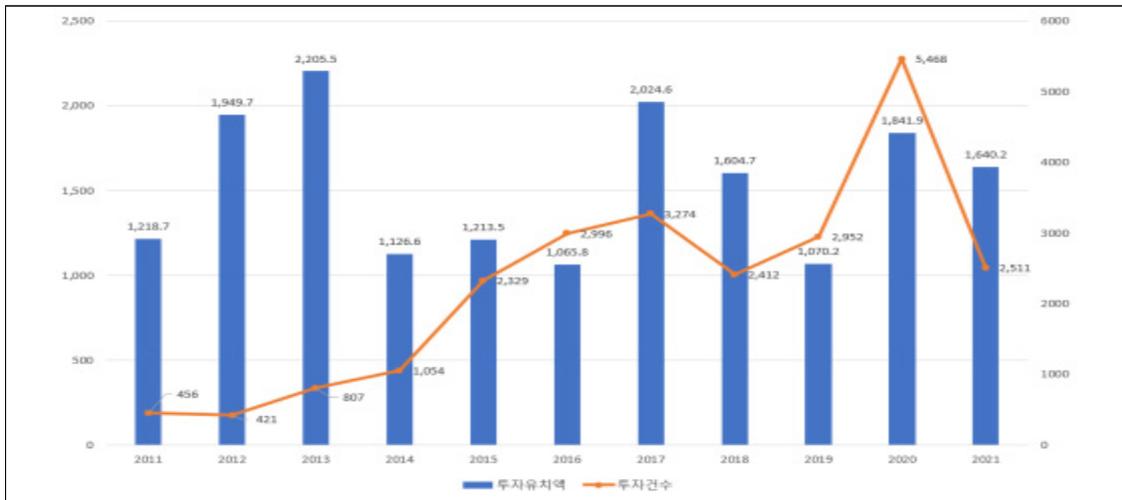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대기업의 대형 투자 진출 여부에 따라 부침을 거듭, '21년에는 대규모 투자 다수 발생
 - 포스코('10), 한국타이어('11), 롯데케미칼('10), 종근당('15), 지누스('18), 현대자동차('19), KCC('21), LG에너지솔루션('21) 등이 있음
 - '19년을 제외하고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한국의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 투자 추이 (투자액, 건수) 〉

(단위 : 백만 달러(좌측 축) / 건수(우측 축))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코로나19 상황에도 활발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진출

- '19년을 제외하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지속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투자에 따른 관련 협력사 투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 소액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ASEAN 시장(할랄 시장 포함)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투자 진출 증가*
 - *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중('21.2)

■ 주요 투자 지역과 분야 동향

- 자바섬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프라 및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 수도 자카르타 접근이 쉬운 서부 자바 산업단지(현대자동차 입주)와 반튼주에 많은 한국 기업 투자 중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바탕산업단지를 포함한 중부자바 지역 제조업 분야 주로 투자
 - 신수도 이전지인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지역에도 인프라 관련 투자 진행 중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역별 투자액/투자건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1			2022.6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서부자바	1,057.4	799	서부자바	329.2	752
2	중부자바	180.5	263	중부자바	166.4	269
3	반튼	172.5	397	반튼	164.7	296
4	자카르타	65.3	624	동부칼리만탄	74.3	18
5	중부자바	63.7	152	동부자바	39.4	134
6	동부칼리만탄	35.2	17	말루쿠	33.8	6
7	파푸아	27.8	24	파푸파	31.6	13
8	말루쿠	9.9	5	자카르타	29.7	407
9	서부칼리만탄	7.2	21	서부칼리만탄	18.9	23
10	남동슬라웨시	5.8	4	람퐁	1.7	6
	총합	1,625.3	2,306	총합	889.7	1,924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주요 투자 분야

- '20년부터 운송기계 분야가 한국의 對인니 투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로 보임

산업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순위	산업	2021		2022.6		
		투자액	투자건	산업	투자액	투자건
1	운송기계	844.1	28	운송기계	235.9	30
2	가죽제품, 신발	199.5	147	전기, 가스, 수도	141.9	15
3	섬유	114.6	307	가죽제품, 신발	135.3	136
4	전기, 가스, 수도	90.5	23	섬유	58	282
5	금속	82.2	71	금속	43.9	71
6	화학, 제약	74.5	91	화학, 제약	38.9	79
7	무역	55.8	652	비금속	25.4	22
8	기계, 전자, 의료기기	38.8	151	무역	21.4	486
9	식품	26.9	89	목재	19.3	35
10	기타 산업	18.1	187	기타 산업	18.4	152
	총합	1,545	1,746	총합	738.4	1,308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

-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나, ODA, EDCF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 중

〈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 공사 프로젝트 수주 금액 추이 ('17~'22.9) 〉

(단위 : 천 달러)

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9
토목	37,315	77,712	43,154	12,703	55,048
건축	4,396	3,924	239,827	54,297	191,207
산업설비	810,901	3,646,654	434,958	67,126	3,137,523
전기	437	826	914	1,387	0
통신	3,647	0	1,914	0	0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공급망) 광물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개요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주요 외국인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부침을 거듭 중

- 광물 산업은 '20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5위를 기록하고, '21년 2위를 기록하며 '22년 3분기까지 2위를 유지한 주요 투자 유치 분야
- 투자 유치액은 '17년 최고치를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다 '21년 들어 반등에 성공했으며, '22년 광물 분야 투자액은 3분기 기준으로 34.8억 달러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 * 43.8억 달러('17) → 30.4억 달러('18) → 22.6억 달러('19) → 20.1억 달러('20) → 38.2억 달러('21) → 34.8억 달러('22.Q3)

- 광물 분야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며 한국도 주요 투자국
 - 인도네시아 광물 분야 누적('90~'22.3Q) 투자액 기준으로 미국은 159.1억 달러 수준을 투자해 1위 투자국(점유율 39%)
 - 그 뒤를 싱가포르, 호주 등이 잇고 있으며 한국도 15.6억 달러를 투자해 6위 투자국 자리 차지 중(점유율 4%)

〈 인도네시아 광물 산업 주요 투자 유치국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순위)	2018	2019	2020	2021	2022.Q3	누적 투자
미국(1)	964.5	771.6	515.2	1,686.2	1,606.9	5,544.4
싱가포르(2)	1,003.4	360.5	596.4	819.7	989.5	3,769.4
호주(3)	267.7	193.0	234.1	114.9	266.1	1,075.8
네덜란드(4)	225.4	152.6	133.0	440.1	0.2	951.3
캐나다(5)	165.2	173.9	158.4	172.2	122.8	792.4
한국(6)	56.2	166.9	16.1	29.6	124.5	383.3
총합	2,682.4	1,818.5	1,653.2	3,262.7	3,110	12,516.6

주 : 내수 투자 및 다국가 연합 투자 등 일부 특이치 제외, 기간 중 누적 투자 기준 내림차 순
 자료 :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09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광업법을 통해 기본사항 규율('14년 1월부 시행)
 - 이전 계약 기반 영업권, 광물 개발 협정, 광권, 채굴권 등이 단일화된 특정 광업 지역 기반 면허 시스템(license system)으로 대체
 - ① IUP(Izin Usaha Pertambangan) : Mining Business Licence
 - ② IUPK(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 ③ IPR(Izin Pertambangan Rakyat) : People's Mining Licence
 - 면허 보유업체(license holder)는 하청업체에 광산 업무 전체를 하도급 계약하기보다는 책임 부여를 위해 일부는 직접 수행하도록 규율
 - 기존 인도네시아와 외국 투자자 사이의 많은 차이점을 제거, 100% 외국 투자를 허용
 - 광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유보 및 재투자 유도
 - * 생산 연차 10년 이전까지 외국 투자의 광업 사업 허가 지분을 51%까지 매각
 - * 가공 처리되지 않은 광물 수출 제약 및 인니 내 가공 처리 의무화
 - * 최소한의 국내 시장 판매(DMO : Domestic Market Obligation) 의무 절차 도입
 - * 원자재 수출 시 거래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가격 벤치마크 체제 도입
- 위의 광업법을 바탕으로 현황에 맞게 수정하며 운영 중
 - '17년 광업법 관련 개정을 통해 인니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미제련 광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제련소 설비 완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부여했던 49% 초과 지분 보유 인정 규정을 삭제
 - '20년 개정광업법을 발표해 ①'09년 이전 허가를 받았던 광산 운영업체들의 허가권 연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광업허가 권한을 에너지광물자원부로 귀속

- **옴니버스법 시행으로 특정 광물의 제련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20년 10월 전격적으로 공포된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중 투자에 관한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제110호(Perpres No.10, 2021)에 따라 특정 광물(구리, 니켈, 망간 등)의 가공 및 제련업이 우대업종으로 지정
 - 우대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 투자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인허가 신속 지원 등 다양한 유·무형 혜택 부여 가능
-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니 정부의 광물자원 수출 제한 정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존**
 - 단기적으로는 광물 수출 금지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광물 수출에 따른 세금·로열티 감소로 무역·경상수지에 악영향 예상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와, 역내 GVC 참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 투자 대비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계획을 바탕으로 핵심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산 부품 사용 비중(TKDN) 확대, 자국 수요를 우선한 수출입 제도 운영, 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
 - 아직까지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불확실한 행정처리 등 투자 제한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포착한 신시장(헬스케어) 개척 기회**
 - L사는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이후 수출 트레이딩 외에 팜오일 농장과 수력발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중
 - 인도네시아 신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 분야를 찾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방역물품 관련하여 다양한 확보 요청을 받음
 - 초기 PCR 진단키트와 다양한 의료기기 기부를 진행하다 현지 코로나19 진단 시장 성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PCR 진단이 가능한 LAB 시설을 현지 재난방재청·보건부 협업을 통해 하나의 의료기기로 현지에 공수해 운영 시작
 - 올해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에 총 3개 랩을 직접 운영, 술라웨시 지역에는 1개 랩을 기부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향후 PCR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진단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실패 사례) 제품 특화 실패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 L사는 '11년 현지 요식업에 진출한 이후 최대 35개 매장을 운영
 - 하지만 현지 시장점유율 80%를 기록 중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제품 특화에 실패했고, 코로나19로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전격적으로 철수 결정

다. 협력 유망 분야

■ 경제협력 개황

- 인도네시아,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 대상국이며 최초 해외 유전 공동개발국이자 제1호 플랜트 수출국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역사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수교 50주년에 따라 협력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준비 단계
 -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이를 통해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도출했고,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
 - '22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한하여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연대 구축 합의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현황 〉

연도	교류 성격	주요 내용
2017	한국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新)남방정책 발표 ○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인니 경제협력 안건이 포함된 공동비전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통·보건으로 분야 MOU 체결 - 경제주체 간 경제협력을 위한 14건의 양해각서, 거래조건협정서, 계약 등 체결 * 공공주택, 전력발전, 할랄, 금형 분야 협력, 전자상거래, 조선산업 협력 등 ○ 6가지 중점 협력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교류, 경제협력, 기간산업 협력, 사람 중심 경제협력, 중소·중견기업 교류, 교역 품목 확대 등
2018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재확인 ○ 상생과 미래 성장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 체결 - 기업 및 경제 기관은 약 62억 달러에 이르는 양해각서, 거래조건협정서, 계약 등 15건 체결 * 제조업,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공정무역, 스타트업·창업, 전력발전, 화장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시개발 등
2019	일본 방문(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논의 ○ 인프라, 자동차, 석유, 방산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19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교류 본격 추진
2022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간 실질 협력 증진과 국제 현안 공조 강화 ○ 인니 수도 이전 사업 관련 업무협약 ○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 구축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신수도 건설

● 신수도 법제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법률(2022년 제3호)'을 공포
- 신수도 이전은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지반 침수, 교통 체증 등을 타개하기 위해 '19년 8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하며 추진
- 수도 이전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다 '22년 1월 신수도법 국회 통과, 2월 신수도법 공포, 3월 신수도부 신설 등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

■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 '20년부터 한국 국토교통부와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
 - * 인니 신수도 관련 사업 :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2020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2021년) 등
- 한국 기획재정부와 KIND는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신수도 종합계획', '자금 조달방안', '에너지 전환계획' 등의 정책 자문을 제공 중
- KOTRA는 '20년 인도네시아를 포함 신남방 주요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개소해 신도시를 포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구분	사업기간	인니 부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20년 K-City Network	'20.7~'21.5	공공주택 사업부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1년 K-City Network	'21.9~'22.4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0.11~'21.9	국가개발 기획부
수도 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수립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1차			
신수도 에너지 전환 마스터플랜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21/'22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2.1~'22.11	국가개발 기획부
신수도 개발계획 2차 - 토지 확보, 활용 및 실행관리 조직 운영			
신수도 자금조달방안 2차 - 이전 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신수도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기본구상			
신수도 에너지 전환계획 2차 - 가스 활용 최적화 로드맵			

자료 :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조회 기준일 '22.10.20

- 또한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1년 2월 인도네시아 주재 2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인니 수도 이전 협력 팀코리아'를, 같은 해 6월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회장, 국회의장 등과 '한-인니 협력망'을 출범해 양국 교류와 협력사업을 발굴 중
- '22년 7월 양국은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수도 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 개정의정서'를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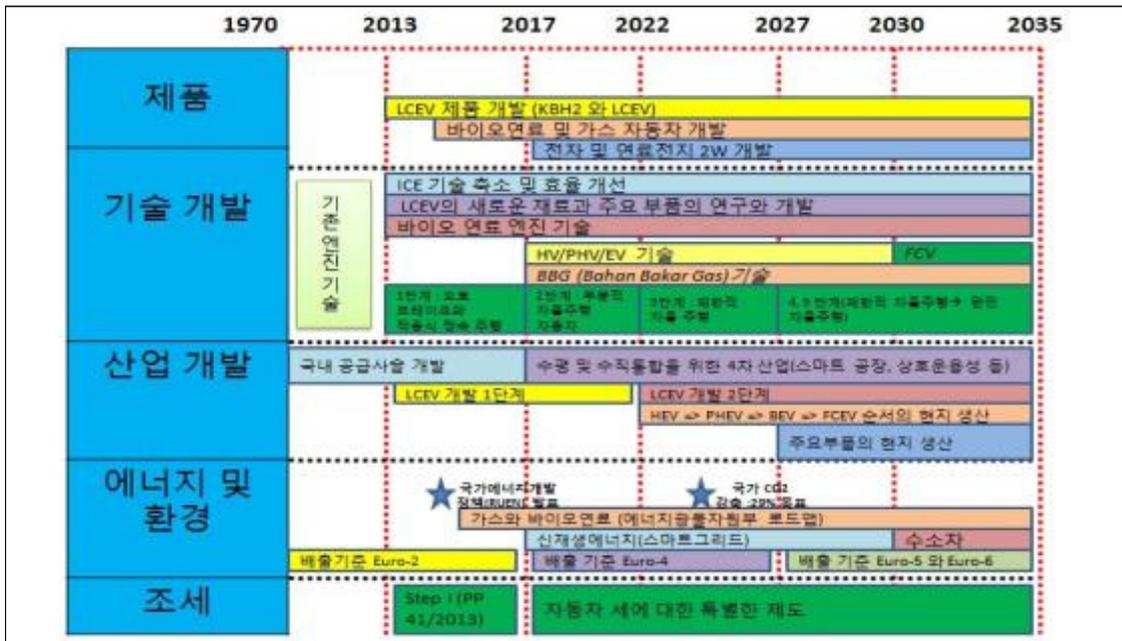
- '22년 8월 인도네시아 신수도부 장관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신수도 관련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

■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유망 분야 : 전기차

● 전기차 생태계 관련 정책

- 인도네시아는 2018년 발표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에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그간 자동차 산업이 단순 조립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
- 아울러 니켈 원광의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니켈 제련, 중간제품 생산 및 최종재인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다운스트림 육성책을 전기차 산업에 적용 중
- '19년 8월 '전기차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2019년 제55호)'을 공포하고 '25년까지 전기차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 전기차(BEV) 생산을 자동차 생산 대수의 20% 수준 달성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비, 전기차 생산 시 현지 재료·부품 조달률(TKDN) 등 포함
- 자동차 생산 시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ND) 지속 확대*
 - * 4륜 이상 전기자동차(30년까지 국산 부품 80%), 2륜 및 3륜(26년까지 국산 부품 80%)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0년 9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발표

〈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 로드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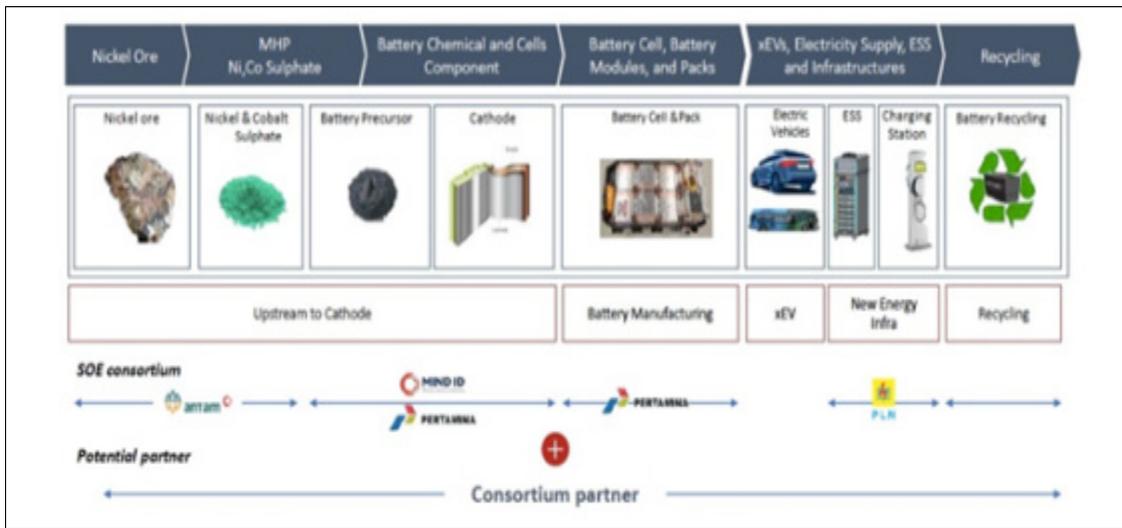
자료 :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

- 더해서 '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5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
 -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21.6)
- 이외에도 정부는 '25년까지 전동자전거와 전기버스를 포함 약 89만 2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 전기차 관련 다양한 정책과 규정이 마련 중
 - * '22년 9월 '공공 부문 전기차 이용 촉진'에 대한 대통령 지시(2022년 제7호)
 - * 현지 언론사 템포(Tempo)는 중부자바 주정부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를 공용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 정부와 국영기업 4개 사가 출자한 법인(PT. Industri Baterai Indonesia)*을 설립,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생산 생태계 구축 노력
 - * PT. Aneka Tambang(광산),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산),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전력), PT. Pertamina (석유) 등 4개 사 합작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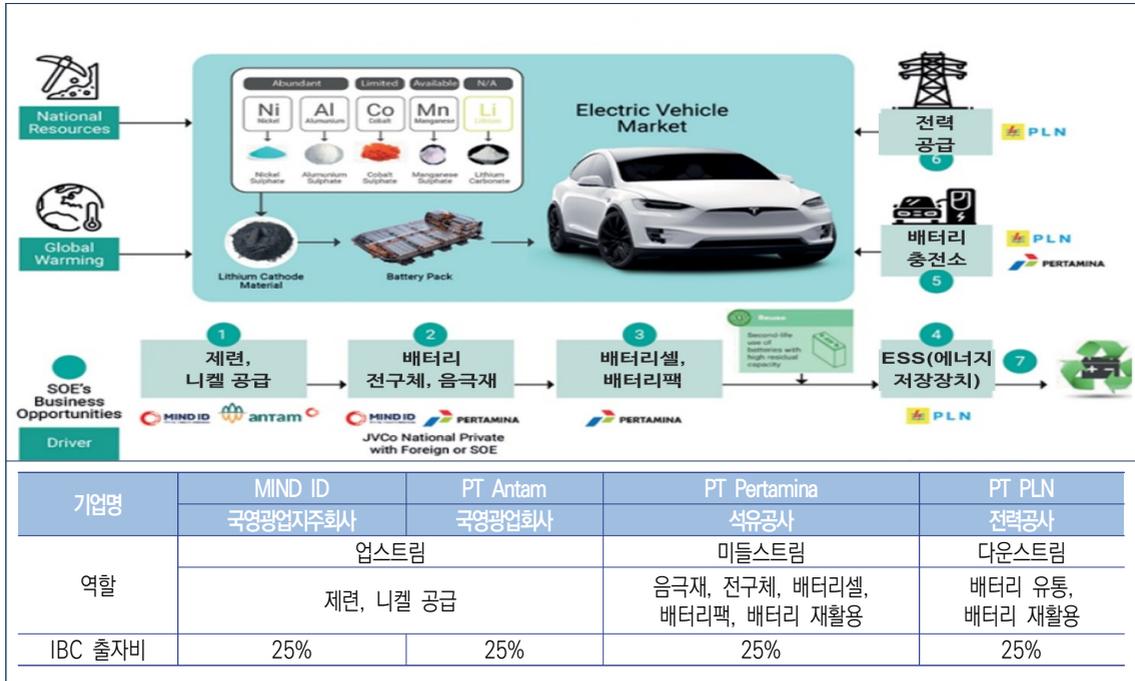
〈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계획 〉



자료 :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주최 웨비나, '21.6)

- 니켈 채굴, 제련에서부터 음극재, 전구체, 배터리셀, 배터리팩 생산, 배터리 유통 및 재활용까지의 공급망을 국영기업 주도로 구축 중이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빠른 속도로 전개 중
- IBC는 단계적으로 1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2030년까지 국내산 전기차에 200만 대, 국내산 전기이륜차 1천만 대에 공급할 계획
- '30년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기회화 추진

〈 인도네시아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참여 기업 〉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

● 한국, 대만, 중국 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참여 각축

- 현대차는 '2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 시작
- 전기이륜차 부문에서 대만 폭스콘과 세계 1위이자 대만 전기스쿠터 업체 고고로(Gogoro)는 투자부(BKPM), 인도네시아배터리 코퍼레이션(IBC)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배터리셀, 모듈, 배터리 회수 등의 생태망 구축 계획

〈 주요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참여 동향 〉

국가	기업명	내용
한국	현대자동차	'22.3월 델타마스 완성차 생산공장 완공, 아이오닉 5 양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3년 상반기 카라왕 배터리셀 공장 완공 예정
	현대캐피탈	'22.7월 인니전력공사와 이륜전기차 인프라 구축 양해각서 체결
	LG컨소시엄	'22.6월 바탕산업단지에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 선포식
대만	폭스콘-고고로	'22.1월 인도네시아배터리코퍼레이션(IBC)과 양해각서 체결
	폭스콘	'22.6월 바탕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발표
중국	CATL	'22.4월 국영광업회사(PT Antam) 등과 배터리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
	BYD	'20년부터 트랜스 자카르타(Trans Jakarta) 전기버스 시범 운행 중

자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전기차 판매도 빠른 속도로 증

- '21년 935대 판매에 그쳤던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등 포함) 판매는 '22년 9월 누계 5,623대로 증가
- 반면 '22년 3월 기준 인니 전역 배터리 충전소 설치 대수는 총 261개 불과해 전기차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

〈 인도네시아 전기차(EV), 하이브리드카(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V) 판매 (2022.1~9월 누계) 〉

그룹	브랜드	차종	모델명	EV/HV/PHV	판매대수
도요타 그룹	도요타	승용차	C+pod	EV	12
		승용차	Corolla	HV	145
		승용차	Camry	HV	212
		SUV	C-HR	HV	59
		SUV	Corolla Cross	HV	815
	렉서스	승용차	Lexus ES	HV	145
		SUV	Lexus UX	HV	11
르노 닛산	닛산	승용차	Leaf	EV	32
		SUV	Kicks	HV	433
GM 그룹	울링	승용차	Air EV	EV	2,708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현대	승용차	Ioniq	EV	45
		SUV	Cona	EV	20
		SUV	Ioniq5	EV	947
	Genesis	승용차	Genesis G80	EV	10
BMW 그룹	Mini	승용차	Cooper	EV	13
미쓰비시	미쓰비시	SUV	Outlander	PHV	10
동풍기차공사	동풍기차	MPV	Gelora	EV	6

자료 : 마크라인즈(Marklines)

●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포스코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참가 중

- 한국 기업 진출은 크게 ①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 배터리 패키지, ②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현지 생산공장 설립, ③현대자동차 전기차 현지 생산 형태로 나뉨
- 포스코는 '22년 7월 인니 투자청과 MOU를 체결하여 전기차용 강판 제작
- 한국 기업들의 현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움직임에 따른 파생수요 발생 전망

〈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주요 동향 (2022) 〉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 내용
Mining Industry Indonesia (MIND ID)	전기차 배터리	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 광산을 운영하는 자회사 Aneka Tambang과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 그리고 국영 전력기업 PLN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배터리'라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 Mind ID는 광업 부문을 담당하고, 중간 가공과 유통 부분을 Pertamina와 PLN이 관리할 예정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 내용
정부 (관광창조경제부)	전기차	2021.4	○ '30년까지 정부 중점 육성 관광지인 토바호수, 리쿠팡, 보로부두르, 만달리카, 라부안바조 등에 전기차 우선 도입 추진
고척	전기차	2021.5	○ '30년까지 전기차,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해 탄소 배출 제로 도전 발표 ○ 전기차·오토바이 제조업체와 임대계약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해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2021.9	○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12억 달러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설 시작 ○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인근인 카라왕 산업단지에 약 10만 평 규모로 건설되며 연간 전기차 배터리 약 15만 대분 이상인 10기가와트시(GWh) 배터리셀 생산 ○ '23년 상반기 완공, '24년 양산 목표
정부 (재무부)	전기차	2021.10	○ 전기 배터리 혹은 전기 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10월 16일부 사치세 면세 * Peraturan Pemerintah No. 74 Tahun 2021 ○ 추가 혜택(홀짝제 대상 제외, 몇몇 지역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차	2021.10	○ 현대자동차 정익선 회장, 인도네시아 방문 ○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 전기차 로드맵과 친환경 정책 행사 참석을 통해 협력 논의 ○ 내년 발리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현대 제네시스 전기차 선정
포스코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차	2022.07	○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 전기차 강판 제작을 위한 포스코-인니 투자청-크라카우스틸 MOU 체결

주 : 과거('21년 이전) 동향은 KOTRA 2021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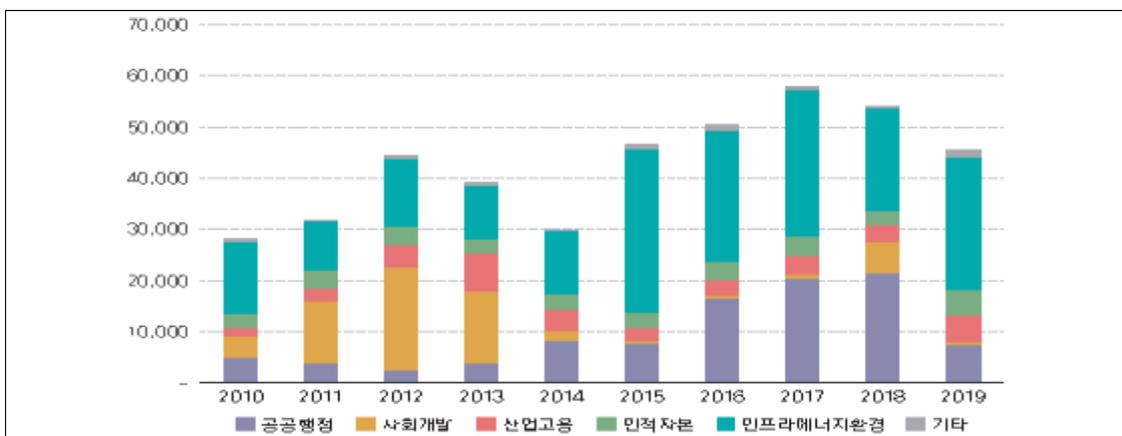
자료 : 언론사 및 정부 발표 종합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및 교류 개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 점진적인 지원액 증가 추이 기록

- 프로젝트·개발건설링, 연수생 초청, 민·관 협력, 국제기구 협력, 봉사단 파견,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
- 특히 '10~'19년 누적 지원액 기준, 인프라·에너지·환경 분야에 44.7% 자금이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 차지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ODA 규모 (2010~2019)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Stat

- ODA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발 경험 노하우 전수 사업도 활발
 - KSP 사업이 '05년 시작된 이래 '20년까지 총 34개 사업(90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공동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 등 진행
 - 현지 개발 분야 총괄 부처인 국가개발기획부를 중심으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

- 사람, 평화, 번영(3P) 기조 아래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 번영 사업 진행
 - ODA 사업을 통해 산간지역 등 전력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구축('20~'24)
 - '19년 인니 진출 시작한 현대자동차, '21년 7월 인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위해 자동차 생산설비를 활용해 의료용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
 - 한국의 제넥신과 인니의 칼베(Kalbe),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중으로 임상 2상까지 진행, 인니 칼베에서는 본격 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제넥신 자회사인 SL Pogen에 역으로 투자 진행('21.5)

2023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환경 및 사업 장애 요인을 진출 기회로 승화

- (역량 확대) 한류를 심분 활용해 청년·디지털 공약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강점 활용) GVC 관점에서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시장 집중 공략
- (기회 포착) 정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분야 진출 기회 포착
- (위협 대응) 지속가능 발전, 틈새시장 직접 투자 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인도네시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비중이 높은 거대한 소비시장 • 풍부한 원자재 보유국 •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유통 등 열악한 제반 인프라 • 낮은 1인당 구매력과 지역별 큰 경제 격차 • 정부 정책(규제) 불확실성 지속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유망한 프로젝트 진출 기회 존재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류문화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 선점 시장으로 높은 진입장벽 • 급속도로 증가하는 임금 수준에 따른 부담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 기조 강화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중점 협력 유망 분야 진출 추진 • 디지털 마케팅으로 고객인 청년층 소비를 중점 공략 • 한류를 활용한 생활소비재의 유통·판매 경로 다각화 	협력 유망 분야 및 디지털을 공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선점 추진 • GVC 구축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 모색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시장 집중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교육 서비스와 테크를 결합한 사업 참여 • 친환경, 스마트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 모색 • 한-인니 경제협력 사업을 통한 인프라 진출 추진 	정부 지원 사업 참가로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산업 기회 포착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 발전 모델 개발을 통한 진출 기회 모색 • 시장 및 정책의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리스크 최소화 • 수입 대체 지속 추진 분야는 직접 투자 검토 	지속가능 발전, 틈새시장 직접 투자 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3년 진출전략

분 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의료기기	①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수요를 진출 기회로 전환 ◦ 현지 역량 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대체 정책에 대비해 직접 투자 고려
식·음료	② 한류문화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시장 점유율 확대 ◦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한류문화 홍보 및 인지도 확대 ◦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넘어 할랄 밸류 체인으로 진입 시도
화장품	③ 고객 특성별 마켓 세분화를 통해 경쟁에 대비 ◦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주 소비자에게 맞춘 제품 개발 필요 ◦ 주 사용자인 젊은 세대에게 홍보하기 위해 한류문화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④ 경제 협력을 통해 내년도 정부 중점 프로젝트 공략 ◦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신수도, 주요 투자 유치 프로젝트 참가 기회 창출 ◦ 사전 인증 대비를 통해 정부 지원 프로젝트 참가 대비
한류, 디지털, 경제발전	한류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기회 창출

2-1. 의료기기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수준 지속 향상과 코로나19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 인도네시아 보건부, '20~'24년 인도네시아 총 보험 지출액 연 평균 18.2% 증가 전망
- '21년 기준 의약품 원료 80%, 의료기기 90%를 수입에 의존, 정부는 TKDN 등 수입 대체 정책 강화 드라이브
-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 집중, 패키징 계약 체결, 현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파트너사 협업으로 현지 진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수입산 점유율이 90% 이상인 의료기기 시장, 정부는 수입 억제 의지 강조
 - '19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 수준이며 '14년 국민건강보험 출범에 따라 매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혜 범위 및 빈도가 확대되고 있음
 -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5위임
 - TKDN(국산품 사용 비중)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수입 불가 리스트 확대 등으로 수입산 의료기기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
 - TKDN 강화를 통한 수입 감소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지 의료기기 생산 역량이 부족하여 수입의존율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보건부 등록 및 판매 관련 진입장벽 강화
 - (할랄 인증) '26년부터 전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표기 필수화, Non-Halal 로고 표기는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수입 불가 리스트) 현재 79가지 제품군에 대해 수입 불허, 다만 현지 수급 문제 또는 현지 제품과 기능 및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수입 가능하기도 함
 - (TKDN) '22년 TKDN 적용 의료기기 품목 대폭 확대, 수입 제품을 현지 생산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세
 - * Global Atlas에 의하면 '16~'20년 TKDN으로 인해 의료기기 품목 수입 30% 감소
 - (BPJS) 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2년마다 정부 조달기관에서 입찰, 2년마다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 노출
- 의료기기 주요 플레이어는 병원·검사기관(구매자) 및 수입사(수입·유통)
 - (검사기관)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주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찰받는 문화가 있음
 - * 주요 검사기관 : Prodia, Kimia Farma, Pramita, Citro, Biomedika, Parahita 등

- (병원) 사설병원과 국립병원으로 구분되며 사설병원이거나 비보험 서비스는 관계없으나,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입
- (수입사) 보건부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 Izin Penyalur Alat Kesehatan) 취득 필수
 - * '21.2월부터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 관련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자본 취득 100% 가능 (기존 최대 49%)

● 현지 반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

- 의료기기 및 건강에 관련한 생활기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록(ALKES) 의무
- 보건부 등록은 현지 수입사 위임 또는 현지 투자 법인 설립을 통해 가능
-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된 직결성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되며 D로 갈수록 요청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등록 기간 및 비용 증가

〈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구분 〉

등급	의료기기 구분	심사 등록비 (Rp)
Class 1/A	오용하더라도 환자에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의료기기	1,500,000
Class 2a/B	오용하면 환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의료기기	3,000,000
Class 2b/C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기기 등록 시 위험 평가서, 안전성 입증 평가서 제출	3,000,000
Class 3/D	환자, 간호사 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유통 전 위험평가서, 안전성 입증서류, 임상시험 결과 등 제출	5,000,000

자료 : 인도네시아 보건부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기기 위주 지속적인 수요 보유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등이며, 인공관절 분야는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이 절대적
 -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원격의료시장이 급성장,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진단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원격진단 지원용 웨어러블 진단기기, 특수 진단기기 등(Alodokter)
- 인도네시아 시장 및 문화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토탈 솔루션 방식 제품 마케팅 추진 : 현지 병원은 특정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패키지로 계약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 주요 네트워크 직접 관리 : 현지 파트너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인도네시아 출장 및 현지 의사들을 한국에 초대해 네트워크를 다지는 것이 좋음
 -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현재 TKDN 정책 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현지 로컬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 친화 인증, 할랄 인증을 받는 방안을 고려

※ 의료기기 네트워크 관리 방법 (대응인피온 서창우 법인장, KOTRA 메디컬 웨비나, '21.9)

-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인 의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크며, 1명의 저명한 의사의 제자들이 사단을 만들어 수술 기구나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
- 이런 사의료기기 협회들과의 네트워크는 대리상에게 판매를 위임했다라도 직접 관리가 필요, 한 번씩 한국에서 직접 네트워크 구축 차 방문하는 것을 추천
- 리베이트 영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에 가격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도 있음

2-2. 식·음료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식·음료 수출 증가 추세
 - * 한국 드라마에 방영된 떡볶이, 김치, 소주 등 인기, 바나나우유 등 음료수 수요도 증가
- 식·음료 분야는 인니 정부의 10대 주력 육성 산업군으로 내수 생산 독려 추세 강화, 직접 투자도 검토 필요
 - * 현지 ODM, OEM 제조공장 설립 또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한 진출 모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의 한국 상품 폭발적 인기
 - 식품 시장은 약 263조 달러, 음료 시장은 55조 달러('22)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
 - 한국 식품 카테고리별은 현지 주요 쇼핑몰 수입식품 판매량 2위('21.7, Kompas), 특히 라면, 과자, 떡볶이 등 한국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식음료 제품 인기
 - '22.5월 한국산 식품 누적 수출액은 1억 1,83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AT)
 - 하이트 진로, 할랄 시장으로 알콜 주류 선호도가 전통적으로 낮으나 최근 한국 콘텐츠 인기로 소주 등 주류 제품 수출 최근 4년간 연평균 4% 증가
- 현지 진출을 위해 현지 식약청 인증(BPOM) 취득 필수, 할랄 인증 의무 표기
 - 'BPOM(식약청 인증)은 제품별로 등록하며, 한 개의 현지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현지 수입상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므로, 현지 파트너사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
 - '24년부터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표기가 의무화, 할랄 제품과 논할랄 제품의 판매대 분리, 논할랄 제품의 경우 '돼지고기 성분 포함' 등의 특정 로고 가 포함되며 할랄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될 수 있음
- (식품 트렌드) 선제적 할랄 인증 취득으로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 진출
 - 불닭볶음면은 '17년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타 수입 라면과 차별성 확보, 특화된 맛과 품질로 현지 국민 라면으로 자리매김
 - '22년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인도네시아 베이커리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 양사 모두 할랄 인증을 취득하며 인니시장 로컬라이제이션에 집중하고 있음
- (음료 트렌드) 단맛이 강한 비탄산음료 위주 시장, 최근 소주 수요도 증가
 - 현지 편의점 등에서는 탄산음료나 탄산수 비중이 낮거나 없으며, 주류는 규정상 판매 불가함. 주스, 유제품, 차류 등이 주로 판매되며 단맛이 강한 경향
 - 자카르타 소재 대형 마트 Grand Lucky의 '22년 최대 판매 수입 식음료 제품은 바나나 우유로 '21년까지는 '허니버터아몬드'였음

- 소주 등의 인기도 거세나, 가격을 크게 낮춘 현지 생산 소주가 한국어 라벨을 달고 주로 유통되며, 포도맛, 복숭아맛 등의 맛을 첨가한 소주가 잘 팔림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정부기관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초기 시장 개척 지원 타진
 - KOTRA, AT공사, 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지 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가능
 - 특히 AT공사에서는 농식품 관련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증 분야 일부 비용을 지원
- 한류 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활동 추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점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카페가 오징어게임 테마로 변경한 후 매출액이 3배 증가 보도
 - '22.6월, 인도네시아 건강식 라면 브랜드 레모닐로는 NCT Dream을 모델로 기용하며 매출액 급증, 현지 국민 라면 Mie Sedaap은 최시원을 모델로 사용하여 맞서고 있는 등 현지 브랜드의 한류 마케팅 경쟁 심화 추세
-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식·음료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는 '24년 10월 17일부로 가장 먼저 시행
 - 할랄 신청 시 서류 준비와 검사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지 생산시설에서 돼지고기 관련 시설을 전면 분리하는 등의 시설 점검이 필요함
 - 한국 생산 경험 및 기술, 원자재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통한 현지 유통가격 적정화, 할랄 인증 취득 고려
 - 현지에 식·음료 분야 직접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역점을 두고 조성 중인 할랄산업단지도 눈여겨볼 만함

※ 할랄산업단지 조성 동향 (인도네시아 산업부 Ms. Ghita 국장,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터뷰, '21.9)

-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할랄 선도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8곳의 할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할랄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할랄 관련 모든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단지에는 할랄 인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이 입주할 계획
- 더해서, 산업부에서는 입주 기업 대상 할랄 인증 FASTTRACK과 세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할랄 교차 인증을 논의 중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할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할랄산업단지 투자를 추천

2-3. 화장품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산 화장품(HS 3304)의 인도네시아 수출 52백만 달러, 수입시장 점유율 1위('21)
- K-뷰티 인기 지속, 다만 한국 컨셉의 현지 생산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빠르게 공략 중
- 할랄 인증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선제적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업체와 협업으로 대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 전망 긍정적, 화장품 현지 생산 급증 주목
 - 화장품 시장은 '21년 7조 달러 규모, '26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전망, '21년 화장품 수입은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
 - 최근 한국화장품과 유사한 디자인 및 기능을 내세우며 할랄 인증,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춘 현지 브랜드 증가, 현지 시장 빠르게 공략 중
- (K-Beauty) 인도네시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 화장품은 한국 제품
 - '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 수입 급증하기 시작해 작년 한국산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1위(52백만 달러)로 미국, 유럽 제품보다 인기
 - 뷰티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한국산 화장품 인기
 - *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뷰티 소비 1위는 베트남(40%), 2위 인니(34.6%) 순
 - 다만, 한국산 유사한 현지 화장품 출시, 현지 화장품 브랜드의 한국 연예인 모델 기용 등을 통해 한국 화장품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

〈 인도네시아 화장품(HS Code 3304.99) 주요 수입국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1	한국	8	25	34	40	52
2	프랑스	23	28	26	16	26
3	미국	19	38	28	20	26
4	태국	16	22	19	16	22
5	중국	16	20	26	14	20
전체		155	232	254	195	235

자료 : GTA

- (할랄) '26년부터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현지 할랄 마케팅 성공 사례 증가
 - 할랄 인증 선두주자는 현지 기업 PTI와 미국 로레알, 동남아 지역에 공급하는 공장에 대해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해 시장 공략
 - 현지 화장품 'Wardah'는 동물성 성분(태반, 콜라겐, AHA 등)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할랄 마케팅을 통해 인기 급성장,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쇼피, 토코페디아)에서 화장품 판매 점유율 2위('21)
- (그루밍) '20년 기준 시장 규모 5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남성 중심의 시장으로 자기관리에 관심 많은 남성이 많아 그루밍 산업 성장 기대
 - 현지에서는 여성복보다는 남성복을 구매하기가 쉬우며, 남성 전용 바버숍이 주요 쇼핑몰에 다수 입점해 있는 등 남성 위주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더운 날씨로 인해 피부 트러블 및 지성용 피부에 맞는 남성용 화장품 제품이 주류, 자연 성분을 중시하는 여성 트렌드와 달리 기능을 중시하는 추세

■ 진출전략

- 디지털 마케팅 활용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휴대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SNS 마케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홍보 매체임
 - * 올해 3분기 기준,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5시간으로 전 세계 1위(App Annie)
 - 화장품의 경우 단순 제품 홍보보다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루언서 규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음
- 역량을 갖춘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
 - BPOM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받은 현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갖고 현지에서 유통하므로 적절한 유통 파트너 발굴과 관계 유지가 중요함
 - 현지 수입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면 문제가 없지만, 마케팅과 유통 역량이 부족하면 인증 이후 진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21년 초까지는 BPOM 인증 없이도 현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 형태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 현지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BPOM 취득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임
-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대비
 - '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논할랄 제품은 '돼지 성분 포함' 등의 로고가 포함되거나 할랄 제품과는 별도 매대에서 판매되는 등 유통 시 차별적으로 대우받게 됨
 - 이에 따라 할랄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시설 OEM 등의 진출전략 필요
-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식·음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KOTRA를 포함해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지 유통망 입점, 인증 취득 지원, 거래선 발굴 등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기관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4.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7개 주요 군도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건설, 플랜트, 환경 등 프로젝트 多
- ※ 조코위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예산 투입, 건설시장 꾸준히 성장(22년 성장률 잠정치 9.4%, Statista)
- ※ 신수도 건설로 칼리만탄 지역의 도시화, 주택, 인프라 수요 확대 예상
- ※ 인구 증가('22년 기준 2.7억 명)와 도시밀집률 상승('21년 기준 57%)으로 주거용 주택, 인프라 수요 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2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인도네시아는 국가개발 및 경제발전,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15개 분야 212개 프로젝트 추진 중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내용
다목적 댐 건설	54	- 홍수 조절, 연안 보존 시설 - 1천 개 저수지 개발 - 용수 공급 속도 개선 등
도로 및 다리 건설	53	- 8개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 - 군도 간 연결 도로, 다리 - 국도 개선 및 보수
지역 인프라 개발	19	- 지방 산업공단 지역 개발 - 병원, 교육 인프라 구축
정수 및 위생, 폐기 처리 시설	15	- 폐기물 에너지 처리시설 - 친환경 목적 정수시설 - 수력발전소 개발
항구, 항만 시설	14	- 군도별 국제항구 추가 건설 - 항만 시설 유지/보수
에너지 및 자원	14	- 니켈 제련소 개발 - 리아우주 태양광발전소 - 북수마트라 화력발전소
철도 건설, 철도 운송	13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 자카르타 지하철, 경전철 운행 구간 확대 - 지방도시 경전철, 지하철 건설 - 광물자원 운송 철도 개선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내용
공항	6	- 칼리만탄 신공항 건설 - 자카르타 국제공항 4터미널 - 파푸아 신규 공항
의료, 보건 시설	6	- 지방 전문 의료센터 설립, 치료, 재활 센터 - 국민 보건시설 확충
주거단지 개발	2	- 전국 서민형 주거단지 개발 - 수도권, 신도시 주거단지 개발
해변 제방	1	- 수도권 해수면, 침수 방지
교육 부문	1	- 국가 발전 기술 훈련/연구소
관광 부문	1	- 지역별 관광특구, 관광시설 신규 건축 및 유지 보수
플랜테이션	1	- 농업, 산림업 지원
기타	12	- 지역별 투자 유치 경제특구 조성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22.9)」

- 우리 기업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자보데벵 경전철 프로젝트 (LRT Jabodebek)	자카르타-보고르-데폭-브카시를 잇는 광역 노선으로, 길이 44km, 17개 역으로 구성됨. 2023년 초 운영 예정임. 우리 금융사 H, S사가 파이낸싱 참여(’20년)
반타르그방(Bantargebang) RDF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자카르타 인근 반타르그방 지역 쓰레기 매립장 폐기를 고형 연료(RDF) 플랜트 개발 프로젝트로, 우리 중소기업 D사가 수주에 성공 (’22.6월)
라인(LINE) 프로젝트	반텐(Banten)주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로, 우리 L사가 인니 자회사와 합작해 2025년 완공 예정. 연간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 52만 톤, 폴리프로필렌 25만 톤 생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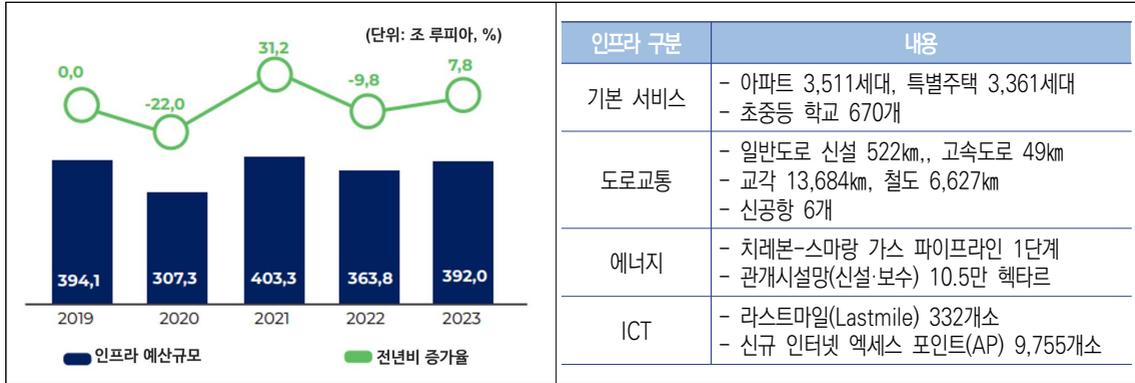
● 신수도 건설

- ’22년 2월 신수도법 통과로, 340억 달러 규모의 메가톤급 프로젝트 본격화
- 6대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신수도를 국가 경제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 추진 중
 - * (1)청정기술산업(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2)통합 제약산업 클러스터 (3)지속가능한 농업 클러스터 (4)에코투어리즘 및 헬스투어리즘 클러스터 (5)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클러스터 (6)저탄소에너지 클러스터

● 2023년 인프라 예산에 392조 루피아 배정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국가예산안 초안(RAPBN)에서 인프라 부문에 전년 대비 7.8% 늘어난 392조 루피아 배정

〈 인도네시아 인프라 부문 예산 규모 (2019~2023) 〉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RAPBN 2023 (국가예산안 초안)」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시장 동향 파악

-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조달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신문 및 영자 신문에 입찰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물품 조달은 정부 조달 사이트(www.lkpp.go.id)나 인니 조달전문협회(iapi- online.org)를 참고, 건설 부문은 인도네시아 공공 조달 입찰 사이트(www.pu.go.id)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 발간하는 그린북(Green book, PPP북(PPP Book) 등을 통해 당면한 프로젝트 개요 확인이 가능하고 블루북(Blue book)을 통해 중장기 계획 파악 가능
 - * 중장기 계획인 프로젝트 중 원조 공여기관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에 대해 그린북으로 연간 발간 중, PPP북은 민관 합작 가능 프로젝트에 대해 연 단위 공개
- 해당 과정에 대해 한국의 주요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동향 파악 필요
 - * 해외조달정보센터, 해외건설정보종합서비스(icak.or.kr) 등
- 입찰에 성공한 한국 기업 대상 납품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자체 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정부에서는 EDCF, ODA 등 사업을 통해 발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이 밖에도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현지 발주사 및 바이어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진출 시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 국산 부품 사용 정책에 따른 투자 형태 고민

- 프로젝트 선정 시 국산 부품 사용 비중 준수 여부도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하는 형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애로 예상
- 이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 따라 직접 투자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선정 사유	SNS 마케팅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 상승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인니 한국산 기초화장품·메이크업 제품 수출 증가 추세 - 34백만 달러(2020) → 40백만 달러(2020) → 52백만 달러(2021) -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진입도 증가하며 성공 사례 발생 ○ K-뷰티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한국 컨셉의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현지 생산 브랜드 비약적 성장 ○ 화학 성분보다는 식물 추출 천연 성분이 들어간 기초 제품을 선호,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우세 ○ '21년부터 현지 식약청 인증(BPOM)을 보유하지 않은 제품의 쇼핑을 통한 직구 수출 불가, BPOM 취득 후 정식 통관을 통해 수출해야 함 ○ '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수출 가능하나, 논할랄 표기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음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시장 내 한국화장품 점유율 1위 ○ 주요 경쟁사 : 로레알,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Scarlett, Somethinc, Whitelab, Azarine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역량 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 현지 할랄 및 무해한 성분에 민감한 트렌드, 할랄 인증 및 유기농 인증 취득과 더불어 관련 마케팅 시행
품목명 2		
초음파 영상진단기	선정 사유	의료시장 확대로 고성능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한국산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요 증가 추세 - 8.9백만 달러(2019) → 12.4백만 달러(2020) → 13.6백만 달러(2021) ○ 2022년 1~8월 對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 - 한국산 의료기기 인니 수입시장 2위, 전년 동기 대비 24.5% 수입 감소, 반면 1위 중국 제품은 동기간 131.1% 수입 급증 ○ 출생률이 2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초음파 진단용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되나, 고품질 저가격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추세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제품이 시장 점유 ○ 주요 경쟁사 :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Philip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현지 수입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 ○ 현지 생산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 TKDN(국산품 사용 비중) 등 수입 대체 정책 대비

품목명 3		
컨택트 렌즈	선정 사유	K-콘텐츠 및 SNS 등을 통해 뷰티 렌즈 인지도 확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對인니 한국산 콘택트 렌즈 수출 규모 - 7.1백만 달러(2019) → 2.8백만 달러(2020) → 7.4백만 달러(2021)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1위 점유 ○ 2021년 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8% 증가, '22년에는 다시 감소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품 점유율 높으며, 그 외 스위스, 미국 제품 수입, 현지에서는 생산되지 않음 ○ 주요 경쟁사 : John&Johnson, Coopervision, Cibavision, Newlook, X2, Geo Medical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비 대상이 미용 렌즈 관심도 높은 MZ세대 집중 - 98%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되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상 의료기기 C등급에 속해 보건부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사전 구비 필요 - 위험도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며, D가 가장 위험한 제품
품목명 4		
플랜지	선정 사유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에 따라 필수 장치인 플랜지 수요 증가 전망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對인니 한국산 플랜지 수출 규모 - 2.8백만 달러(2019) → 11.4백만 달러(2020) → 6.9백만 달러(2021) -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20년 전년 대비 300.6%가 증가한 11.4백만 달러를 기록해 인니 최대 수입국 - 한국 기업의 정유공장 수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 ○ 2021년 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대 감소(6.9백만 달러) -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전 수입 승인 쿼터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내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치산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예상에 따라 수요 증가 전망
	경쟁 동향	○ 내수 기업 제품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제품 사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주 동향 면밀 파악 - 프로젝트 수주 국가에 따라 관련 부품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점점 강화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대비 필요 - 사전 수입 규제 물량 축소 추세, 국산 부품 사용 우선 비중 등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 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기업의 EPC 프로젝트나 ODA의 경우 해당 규제를 극복할 수 있어, 증가하는 인니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5		
비스킷(과자)	선정 사유	한류 인기에 따라 코로나19에도 수요 급증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드라마에 나온 식품 중 과자 수요도 같이 증가 - 2021년 한국산 과자 수입은 2.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4% 증가 - 1위인 태국(21.2백만, +42.9%), 2위인 말레이시아(10.3백만, +39.6%) 수입 역시 증가 추세 ○ 2021년 1~8월 쉐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1.5백만 달러)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3위 기록, '22년 수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제품 점유율 높음 ○ 주요 경쟁사 : Indofood, Garudafood, Kraft Food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 (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6		
라면	선정 사유	화장품과 같이 한류 열풍으로 인한 인기 지속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기 지속 - 2022년 1~7월 쉐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9.1백만 달러)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점유율 1위 (46%) ○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라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 인기로 오징어떡볶이의 수요가 증가 - 맛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용하는 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음(불닭볶음면, 짜장맛 라면 등)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산 현지 라면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취득한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도 3~4위 수준 유지 ○ 주요 경쟁사 : Indofood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7		
소주, 맥주 등 주류	선정 사유	무슬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소주 인지도 확대 - 코로나19로 2020년 수입량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수입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위 기록 ○ 2022년 1~7월 쉐인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2위(점유율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주 음용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2위,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소주 음용률은 2020년 74.8%로 2016년 대비 65.8%p 증가해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 - 수도 자카르타에 진로 참이슬을 전면에 내세운 참이슬 카페 운영 시작('21.11) -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단맛을 첨가한 소주 제품이 인기 ○ 최근 현지 생산된 소주가 유통량이 크게 증가 - 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한국어 라벨링을 갖춘 소주제품의 현지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지 한국산 소주 가격은 약 1만 5천 원대로 진입장벽이 높음
	경쟁 동향	○ 영국 Smirnoff Red, 현지 바람소주 등 다양한 제품 판매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선납 법인세, 그리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소비세는 알코올 도수별로 세금 부과 비중이 달라 사전에 파악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선정 사유	각종 인프라 추진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44%로 4위에 해당하는 국가 주요 산업 ○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로 인한 잠재적 내수 수요 기반과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으로 인해 건설과 토목, 건설 설비, 기계 분야 등 주목받는 시장으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예정 - 35,000MW 규모의 전력발전소 추가 설립 프로젝트의 지속, 전 국토 광케이블 통신 연결 완료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 : Wijaua Karya, Waskita Karya, Pembangunan Perumahan, Adhi Karya ○ 민간기업 : Nusa Raya Cipta, Total Bangun Persad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포함 각종 기관 진출지원사업 참가 ○ 양국 경제협력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ODA/EDCF 등 사업 동향 파악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 사유	2014년 공보험 체계 도입, 최첨단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5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수입품이 절반 이상인 28억 달러 규모를 차지, 한 국산 제품은 비교적 고품질/고가격인 미국 및 유럽산과 저렴한 중국산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가 많음 ('21년 10월 코트라 메디컬 웨비나) ○ 병원시설 확충 프로젝트가 민·관 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되며, 해당 시설은 국립암센터, 대학병원 등임 ○ 애플리케이션 기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인력 부족
	경쟁 동향	Siloam Hospital, Medistra Hospital, SOS Medika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서비스 진출의 대부분은 외국인 자본율이 67%로 제한되어 있어, 진출 전 합작 파트너를 신중히 물색 ○ 헬스케어 공급망, 의료기관 의료기록 전산화, 원격진료, 고성능 통신의료 기기 등 헬스케어 IT 분야 협력 ○ 제조·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분야 진출

품목명 3		
교육 서비스	선정 사유	인도네시아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시장 협력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중 아동(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전체 인구 1/4 이상을 아동 인구가 차지하고 있음. 세계 아동 인구 순위로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아동 시장을 보유 ('20 인도네시아 키즈 콘텐츠 산업 동향, 콘텐츠진흥원) ○ 교육문화부 장관에 고직 창업자 임명, 에듀테크(EduTech)산업 발전 가능성 다대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 서비스 종합 플랫폼 : Ruangguru ○ 튜터 매칭 플랫폼 : sukawu, PrivatQ ○ 교수활동 관리 플랫폼 : HarukaEdu, Kelase, Class Kit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추진, 한-인니 고등 교육 교환 제도 지원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콘텐츠 보급, 유/무선 접속 시스템 구축, 한류 활용 교육 프로그램(한국어) 수출 등
품목명 4		
금융 서비스	선정 사유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 수요 ↑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아, 전자화폐 서비스가 발달. 또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대표적인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오보(Ovo)와 고페이(Go-Pay)가 전자화폐 주도권을 잡으면서 핀테크 시장이 개편 ○ 인니 정부는 2016년 11월 핀테크담당국(BI-FTO, Bank Indonesia Technology Office)을 설립하여 기술 발전 및 수용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핀테크 규정집(19/12/PBI/2017)을 발표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 동향 2022년 09호, 콘텐츠진흥원)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은행 :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I 등 ○ 외국계 은행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 ○ 핀테크 업체 :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추천, 할부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 결제 서비스, 카드 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엑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 ○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

품목명 5		
콘텐츠 (웹툰/애니)	선정 사유	한류 문화의 핵심 분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잠재 가치는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 중 하나임 - 한국 웹툰, 애니메이션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경쟁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콘텐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로 진출 ○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에 능통한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 -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나, 현지 민감한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업 권장 ○ 사전 지식재산권 등록 등 법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첨부 3 '23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현지 대기업 수요 맞춤형 파트너링 확대	글로벌 및 로컬 챔피언 수요 발굴 맞춤형 상담회	'23년/미정
2		분야별 특화 핀포인트 상담회	'23년/미정
3	한류 확산 활용 소비재 시장 진출 심화	인도네시아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3년/미정
4		인도네시아 첫 진출 희망 기업 테스트 마케팅 사업	'23년/미정
5		온라인 판촉전 O2O 전시 연계 상담회	'23년/미정
6	헬스케어 분야 시장 수요 적극 대응	국영제약사 협업 웨비나 및 상담회	'23년/상반기
7		GVC 재편 대응 한국 유망 기업 상담회	'23년/하반기
8		보건의료 협력 증진을 위한 웨비나, 상담회	'23년/하반기
9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창출	한-인니 수교 50주년 연계 비즈니스 플라자	'23년/상반기
10		IK-CEPA, RCEP 등 FTA 활용 설명회	'23년/미정
11		FTA 활용 유망 품목 중심 상담회	'23년/미정
12	인니 수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협력 기회 발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23년/상시
13		스마트시티 온라인 로드쇼	'23년/하반기

* 차년도 계획은 현재 수립 중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참가 전 무역관 문의 필수

첨부 4 '23년도 정치·경제 주요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없음 ('24년에 대선 및 총선 예정)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SEAN 정상회의	'23	의장국

■ 유망 전시회·컨퍼런스·포럼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onesia International Textile Sourcing&Apparel Production Technology (봉제, 섬유)	'23.3월	
Solar Tech Indonesia (신재생에너지)	'23.3월	
Indonesia International Trade Show for Automotive Industry (자동차)	'23.5월	
Powergen Renewable Energy Indonesia (신재생에너지)	'23.5월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Show (자동차)	'23.8월	
Indonesia Maritime Expo (조선, 해양)	'23.10월	
All Pack Indonesia 2023 (포장기계)	'23.10월	
Indowater 2023 (수처리)	'23.10월	
Machine Tool Indonesia 2023 (일반기계)	'23.11월	
Cosmobeauty Indonesia 2023	'23.11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윤병은	차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beyoon@kotra.or.kr
2	양효준	차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hyang@kotra.or.kr
3	정선영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syjeong@kotra.or.kr
4	김대희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daeheekim@kotra.or.kr
5	도희수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heesoos5@kotra.or.kr
6	Fitri Arifenie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arifenie@kotra.or.kr
7	Raina Surtiani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raina@kotra.or.kr
8	Chitra Claudia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chitra.kotra@gmail.com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